



통권 129 호

후원회 소식

발행일 2002. 7. 14
발행인 권오현
발행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동생들을 죽인 미군이 싫어요!



지난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즈음하여 대한민국 의정부에서는 반미의 함성이 울렸다. 바로 주한미군의 장갑차에 깔려 죽은 고 심미선, 신호순의 넋을 대신하여 모인 이들이 '미대통령 부시의 사과와 진상규명, 책임자처벌'을 외치며 의정부 미2사단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의정부역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하였다. 표지제목은 죽은 여중생들의 언니가 다니는 의정부여고 생들 200여명이 지난 6월 20일에 열린 반미집회에 참석하여 한 말이다.

• 목 • 자 •

우리의 주장 권오현 회장 • 2 / 출소장기수 이준원 선생님을 찾아서 고향회 간사 • 4 / 소위 '민혁명' 사건 양심수 이석기님의 누님 이경진님을 찾아서 김현희 편집위원 • 8 / 이일규 회원을 만나서 이창희 간사 • 10 / '영남위원회' 사건 양심수 박경순님께 보내온 편지 • 12 / 범청학련 양심수 김혜신님께 보내는 편지 문숙희 편집위원 • 13 / 면회기 이정태 운영위원 • 14 / 광고 • 15 / 산행기 심만규 회원 • 16 / 회원교육강좌 보고 김민정 회원 • 18 / 특집 6 • 15 금강산 민족통일대축전 '보고 송경용 운영위원 • 19 / 논단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을 촉구한다" 권오현 회장 • 23 / 나의 삶 나의 일터 김호 편집위원 • 26 / 이런 일이 있었어요 • 28 / 재정보고 • 35 / 회비납부 • 36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10-542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전화: 765-5282 전송: 745-5604

회원모임방 151-812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전화·전송: 888-4470 홈페이지: www.yangsimso.or.kr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하고 김형주의장 등 구속대의원을 즉각 석방하라

권오현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

검찰의 맹목적 마녀사냥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 어느때보다도 합법적이며 평화적으로 대의원대회와 출범식(아리랑 축전)을 마치고 젊음과 지성과 열정으로 시대의 요청에 따라 6·15남북공동선언 이행등 민족적 과제실천에 앞장서 온 애국적 청년학생들에 또 다시 이적단체의 굴레를 씌우려 하고 있다.

지난 6.24일 검찰(광주지검)은 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후 한총련) 김형주의장(2002 전남대 총학생회장)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가입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한 7, 8일엔 10기 한총련 대의원 150여명에게 이적단체가입등 혐의로 소환장을 보냈다. 마침내 검찰은 10기 한총련에 대해서도 이적단체로 임의규정하는 이제까지의 관행을 되풀이했다. 이러한 검찰의 부당한 조치는 최근 몇 년동안 새롭게 면모하는 한총련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을 개탄케 하고 있다.

김형주 한총련 의장은 지난 5월 초 한총련의장과 대변인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조치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공개적으로 묻고 있었다. '10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근거가 무엇이나?' 고, '매년 총학생회 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하는 한총련에 대해 뚜렷한 법적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적용' 하는 것을 비판하며 '강령의 합리적 개정과 함께 모든 활동을 철저히 합법적·공개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한총련을 더 이상 이적단체로 규정할 명분이 없다' 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공안당국은 이 물음에 설득력 있는 답변 대신에 끊임없이 대의원을 무자비하게 잡아 가두는데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다. 최근에만도 지난 5.11일 공개적으로 교생실습을 해오고 있던 경북대 국어교육과 김정희 전 학생회장을 중학교 실습현장에서 잡아갔고, 5.12일엔 아버넌 묘소를 참배하던 심혜원, 노혜령(홍익대) 전 대의원을 강제연행했으며 5.29일엔 충청총련 주훈(고대 서창캠퍼스)의장을 음식점에서 잡아갔다. 6.17일엔 6.15남북공동선언 2돌기념행사에 참가하고 돌아온 부산대학교 이원규(2002 부총학생회장), 김민수(2001부총학생회장) 학생을 울산시내에서 강제연행했고 같은 날 11기 부경총련 백남주(2002

동아대총학생회장)의장이 김해에서 잠복해있던 보안수사대에 의해 붙잡혔다. 6.30일엔 농활을 벌이던 경상대 김홍기 부총학생회장이 농민들까지 나서 항의했었지만 보안수사대원들에게 강제연행되었다. 이렇게 공안당국은 마치 입력된 컴퓨터가 맹목으로 작동되듯이 한총련=이적단체단 등식만을 적용, 인권침해는 물론 반인륜행패까지 저지르며 올해만으로도 40여명을 마녀사냥식으로 잡아가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위에서 말했듯이 한총련의장이 검찰총장에게 낸 질문에 답변이라도 하듯이 5.28일 충북 서원대에서 학생회 간부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던 김형주의장을 보안수사대가 덮쳐 강제연행했었다.

검찰은 김형주 한총련 의장을 기소하면서 "2002년 영남대학교에서 실시된 10기 대의원대회에서 경선으로 당선되고, 한총련 중앙간부를 지명하고 한총련 총노선, 강령, 규약, 사업계획등을 심의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2002.5.3~5일까지 서울산업대에서 개최된 한총련 출범식을 주도하는 등 제10기 한총련 의장으로서의 직책과 임무에 따라 활동함으로써 국가의 존엄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인 '제10기 한총련'에 가입하여 국가보안법 7조 조항을 위반했다"고 공소장에서 말하고 있다.

이러한 공소내용을 보노라면 아나라 검찰은 과연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의심이 가고 있다. 50년동안 써 먹던 상투적 논리와 시대의 변화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박제된 주장이 되풀이되고 있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대학생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총학생회장에 당선된 것부터 경선으로 한총련 의장에 뽑히는 일까지 유치원, 초등학교들도 그들의 학생회를 만들고 있는 터에 최고학부의 성인된 지성들이 자신들의 자주적 대중조직을 갖는 것이 이적행위가 되고 있었다. 또한 6·15남북공동선언이 있었음에도 이북은 여전히 반국가단체이고 한총련은 그러한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목적을 가진 단체로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 국가보안법의

존재를 백보를 양보하여 인정한다 해도 이 법 1조 2항에서 밝힌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적용정신을 잊고 있었다.

이제 새삼스럽게 국가보안법 폐지론을 되풀이할 필요도 없이 이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은 6·15남북공동선언시대 더 이상 그 준립명분을 세울 수 없게 되었다. 남과 북의 최정상이 만나 7·4남북공동성명을 재천명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하겠다는 합의는, 남과 북은 더 이상 서로가 반국가단체가 아님을 전제로 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상·이념·정견의 차이를 넘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해 공조해야 할 역사적 임무를 받아안게 된 것이다. 북에서 자주를 주장했다해서 남쪽에서 자주를 외치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검찰의 논리야말로 낡은 냉전의식과 고정관념일 뿐이다.

이미 국가보안법의 반민주·반인권성과 한총련 이적규정에 대해서는 사법당국 안에서부터 문제제기 됐었다. 예로서, 대전지역 형사합의 4부는 한총련은 이적단체가 아님을 판시했었고 그밖에도 많은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서 이적단체 가입혐의가 무죄되는 사례가 있었다. 여기에 국가기관이 처음으로 정부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을 국제인권 기준에 맞게 신속한 개정 내지 폐지를 권고했다.

바로 지난 8일 대통령소속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5기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씨의 의문사 진정(22호)과 관련 “의문사한 자 김준배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문의 민주화운동 관련성에 대한 판단을 보면 『…김준배는 1991년부터 1996년까지 학생운동을 하면서 광주 5월항쟁 정신계승과 전두환·노태우 구속, 노태우정권퇴진, 민주정부수립, 5·6공 군부독재잔재청산과 민주대개혁실현, 5·18특별절제정을 위한 광주학살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등을 요구해왔는데 그것은 대체적으로 군사독재정권을 반대하는 것이나 군사독재로부터 과שה한 역사적 문제의 해결을 주장하는 것이다.…한편 1997년 당시 사회적 상황을 보면 당시의 정부가 권위주의적 정권이었던지는 별도로 논하기로 하더라도 1996년말에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에 대하여 소위 날치기통과가 이루어져 국민의 저항을 받았고, 이어서 대통령의 아들이 정치에 개입하여 여러 물의를 일으키고 한보사태 등 정경

유착의 폐해로 인하여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는 등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이로인한 문제로 우리 사회가 정치·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데 당시 정부가 권위주의 정권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권력행사 방식 등에는 권위주의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가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현실에서 김준배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와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노동법과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규탄, 김영삼정권의 대선자금공개, 한보비리사건에 대한 책임자처벌 등을 요구하는 운동을 하였는데 이는 권위주의적 통치의 한 형태인 정경유착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보다 민주적인 정치과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결국 김준배의 위와같은 활동은 개별적인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저항이라 할 것이다.……』라고 함으로써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있고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제5기 한총련의 강령이나 주장이 표면적으로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것이 몇 가지 있다하여 곧바로 제5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볼 수 없고…』라며 5기 한총련의 이적단체 규정이 잘못임을 지적하기로 했다(이원영, 김준곤 위원의견). 이 5기 한총련을 처음으로 이적단체로 규정하며(1998년 대법확정) 그 뒤에도 강령이 개정되고 폭력시위가 없어도 관행적으로 이적단체를 규정해온 검찰의 박제된 현실인식이야말로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이번 결정으로 이제까지의 오류를 벗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대חק증장과 종교지도자, 사회 각계의 지도자들이 모여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공안당국에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의 기계적 적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 하는 등 한총련의 합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한총련 합법화 범물지위단이 꾸려져 7월말 유엔인권이사회에 이적규정의 부당성을 제소하려하고 있다. 또한 종교인 1000인 선언을 비롯, 학계, 법조계에서 선언운동이 일어나고 정치인들도 이에 함께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여론을 검찰은 옳게 받아안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장한다.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하라!

구속된 한총련 대의원등 양심수를 석방하고 수배조치 해제하라!

김형주의장의 공소를 철회하고 한총련 대의원에게 보낸 소환장 철회하라! ♫

2차 송환을 희망하시고

고광희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간사

그동안 멀다는 이유로 마음과는 다르게 조금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던 대구경북지역의 양심수들을 면회하기 위해 권오현 회장님, 이정태 운영위원과 함께 서울을 벗어난 날은 참으로 화창하고 맑은 날이었습니다. 파랗디 파란 하늘의 새하얀 구름을 보면서 애국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하는 양심수들은 내가 보고 있는 이 멋진 하늘을 함께 보지 못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고, 따가운 햇볕에 까만 피부가 더 탈까봐 몸을 사리는 순간에는 이 뜨겁고 붉은 태양 한번 보기를 갈망하는 양심수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안에 계시는 양심수분들 모두 비록 지금은 동지들의 곁을 떠나 외롭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며 바깥의 동지들의 힘찬 투쟁으로 곧 머지않아 사랑하는 가족, 동지들과 함께 뜨거운 8월을 보내게 될 거라 확신한다는 말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안동교도소, 대구구치소에 계신 양심수들을 면회하여 반가운 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짐의 아쉬움을 안고 대구경북지역 양심수후원회 사무실을 찾았을 때는 점심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권오현 회장님과 약속을 하셨던 이준원 선생님께서는 이미 사무실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처음 뵈는 선생님은 순박한 미소를 지닌 시골 할아버지의 모습 그 자체였고 일흔이가 가까운 나이에심에도 오랫동안의 노동으로 단련된 듯한 강인한 체격과 구리빛 피부가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준원 선생님

하지만 사진을 한 장 찍겠노라 말 씀을드리고 카메라를 가까이 들이 대자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웃으시는 모습은 마치 개구쟁이 소년같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준원 선생님은 1935년 1월 16일 함경남도 함주군 하기천면은봉리에서 아버님 이낙선, 어머님 김병녀님의 7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남쪽으로 내려오실 적에 두 살 터울의 6남매 동생들은 모두 살아계셨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태어나신 하기천면은 산악지대로서 마을 전체가 농업을

하였으며 누군가에게 땅을 빌려줄 처지도 되지 않아 전부가 자작·화전민으로 농사를 짓는 이외에는 돈벌이가 될 만하게 나무땃감을 해다 팔거나 계란을 내다 파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역시 농사를 지으셨던 부모님께서서는 무학이었으나 어머님께서서는 일제 때 외삼촌과 함께한 반일조직에서 진행하는 야학을 통해 몰래 한글을 배우셨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였음에도 선생님께서는 왜놈들이 곡물은 말할 것도 없고 전쟁의 포탄을 만들기 위해 강제로 땀과 피를 공출해 가는가 하면 심지어는 개, 소에 이르는 가축까지 끌고 가는걸 보고, 또 부모님이 한숨을 내쉬며 하시던 걱정스런 말들을 듣고 자라면서 일제가 얼마나 우리 민족을 못살게 구는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제 말기에 당했던 그 아주 독한 착취에 대해서는 기억이 생생할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지독한 고통이셨으면 5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기억에 몸서리쳐질까 라는 생각에 필자는 잠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계속해서

일제의 수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을의 여자들이도 공출해갔는데 그게 바로 지금 우리들이 얘기하는 정신대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 징병을 기피한 먼 친척이 머슴을 가장하고 선생님댁에서 숨어 지냈는데 위낙이 없는 집에 하나 늘어난 객식구인테라 나무 꺾질, 풀뿌리를 먹으며 지내야 했음에도 한 마디 불평없이 해방때까지 숨어지내다 해방후 떠나더니 두 세달 후 보안대 옷을 입고 다시 찾아왔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로 일제의 온갖 억압과 착취에 대해서 느끼고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국민학교 4학년일때 8.15해방을 맞았는데 그때 온 동네가 떠나갈 듯 감격의 물결이었다고 합니다. 해방이 되자 일본이 그동안 금지했던 밭도 일구어 전부 개간할 수 있게 되어 '6·25전까지는 소위 황금시대였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부모님에 대해 여쭙보았습니다. 단순히 농사만 지으시던 분들은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께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매일 열심히 학교엘 다니고 부모님께선 농사만 지으시던 전쟁전의 평온하기 그지없는 마을에서 어느 날 웅변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옛날 야학을 통해 한글도 배우고 하셨던 어머니께서 웅변대회에서 1등을 하셨는데 그 웅변대회는 다른 아닌 인민위원장을 뽑는 대회였고 1등을 하신 어머니께서 그 자리에 뽑히셨는데 아쉽게도 시어머님과 선생님 아버님의 결사반대 - '여자가 무슨...' - 로 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열 아홉 살 되던 53년에 휴전이 되었는데 선생님께서는 1월 8일에 인민군에 입대를 하여 평안남도 강서군 서기리 조선인민군 제14사단 신병훈련소에서 3개월동안 신병훈련을 받으시고 이후에 조선인민군 제14사단 33연대 3대대 7중대 1소대에 육군 보병으로 배치를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필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60여년 가까이 지난 일인데 그 숫자 하나하나를 망설임없이 술술 얘기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에 말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수도 방어사단(사단장 전문섭소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58년 3월에 중국 인민지원군이 철수하면서 철원으로 부대가 이동하여 지하갱도공사와 진지구축하는 일을 하

셨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당시 두더지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굴진공사를 아주 잘 하셨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선 또 소환할때까지 3년동안 중대 초급 민청위원장으로서 일을 하셨는데 민청위원장은 선출직(10% 노동당원, 90%민청당원)이었다고 합니다. 당원 1인의 보증과 초급민청위원회 총회가 보증하는 사람만이 노동당원이 될 수 있는데 선생님은 100여명이 있는 민청총회에서 정치부 대대장이 직접 이름을 거론하며 당 입당을 추천하였다고 합니다. 민청은 집체적인 교육사업도 있으나 한 사람 한 사람과 개별담화를 많이 하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것들을 배려해주며 또 그 사람은 현재 어떤 결함이 있나하는 것을 상세하게 지적하며 훌륭한 일꾼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 1인의 보증이야 쉬울 수 있지만 민청 총회의 보증을 받는다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그렇게 민청위원장을 3년 하시고 많은 책임과 임무가 따르는 노동당원이 되어 있던 1959년 8월, 산악전에 대비하여 '마초'를 하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마초 중앙총화' 시에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랜 시간 회의를 마친 밤이 늦은 시간에 중대장급 상위가 '이동무 좀 보자우' 하시며 부르셨답니다. 따라갔더니 '이동무 어디 가게 되었다'라길래 선생님께선 제대가 얼마 남지 않은터라 제대 명령인 줄 알았는데 상위의 말은 특수임무에 소환될 거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상위의 말을 듣고 얼마가 지났을까 작업을 나가 야간교대후 새벽에 들어오니 '빨리 연대로 올라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연대 간부과에 가니 서류를 건네주며 사단 간부과로 가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곳에 가니 선생님 이외에도 사단에서 대 여섯명이 이미 와 있었다고 합니다. 불려온 사람들 중에 선생님께서 상사로 직위가 가장 높았는데 차를 한 대 내어주며 사람들을 데리고 9사단 간부과로 가라 하였다 합니다. 그곳에서 1시간여를 기다리니 보위성 특수부에서 45명이 내려와서 서류를 검토하고 1명씩 불러 두 세시간씩 심사, 소위 면접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긴 심사 결과 후 선생님과 단 한 분만이 남았는데 그곳에서 이들을 자고 쉼차를 타고

개성시내로 이동을 하여 군초대소에서 머무는데 그 동안에도 보이지 않는 심사가 계속되었던 건지 선생님과 함께 마지막까지 남았던 한 사람은 결국 되돌아가고 다른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심사 간부들이 와서 함께 영화도 보고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도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차 한 대가 오더니 곧바로 짐을 챙겨 떠나야만 하셨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도착하신 곳은 통일전망대에서 화창한 날 보면 바로 보이는 관문군 임안리라고 합니다. 그때가 59년 9월 29일에서 30일경의 일이었는데 선생님께서 그곳 임안리에서 계속 지내다 60년 5월경에 개성으로 옮겨서서 민족보위성 특수정찰국 소속으로 3년동안 전방정찰등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 후 63년 5월 20일에 밀로를 개척하기 위해 조원 2명을 데리고 부조장으로서 조장과 함께 휴전선을 넘은 후 북한산 북쪽 자락인 경기도 양주군 노고산에 분산, 아침부터 비가 쏟아져 땅도 젖고 하여 ‘숙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가 내리는 날에 선생님의 아지트 2,30m전에서 한 남자가 풀을 베고 있다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던지 자꾸만 두리번 두리번거리다 풀을 한 짐 해서 짊어지고 내려갔다고 합니다. 선생님 일행은 그 마을 사람의 태도에 그만 자리를 옮겨야 할 것인지 그렇다고 비가 와서 발자국 같은 게 남을 수 있는데 선불리 움직일 수 없고 해서 1시간 가량을 그대로 머물러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1시간여후 군인 2,3명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들켰구나!’라는 생각에 그 곳을 피하기로 결정하고 만일에 대비해 개의 후각을 마취하는 약을 뿌려놓기 위해 선생님은 뒤에 남고 나머지 일행 먼저 자리를 뒀다고 합니다. 일행보다 뒤쳐져서 맡겨진 임무를 해내고 등산을 넘자니 산나물을 뜯는 아낙네들이며 갈포 뜯는 남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일하는걸 피해 제1접선 장소로 가다가 아무래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 다시 처음의 분산장소로 되돌아가기로 결정하고 발자국을 추적해 가는데 뒤에서 갑자기 ‘정지! 정지!’ 하는 목소리가 들릴길래 반사적으로 몸을 뒹구셨다고 합니다. 뒤에 남겨져 일행과의 접선장소로 갈 때 숨겨두었던 배낭을 다시 찾아 제1

접선 장소로 가서 동지들을 기다리는데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길래 제2접선 장소였던 수색과 의정부사이의 철길로 갔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철길을 넘어야 하는데 날이 밝아 가지 못하고 혼자 숙영을 하는데 경계태세 강화로 군인들이 수색을 하고 있었다고 하십니다. 아무래도 안되겠다 싶어 단독복귀를 결심하고 길을 떠나 63년 9월 29일 장파리에 도착하셨습니다. 근처 소나무밑에 숨어 날이 어두워지길 기다렸다가 임진강을 건너려 하는데 13일 내내 비가 와서 물이 많이 불어나 있었다고 합니다. 팬티바람으로 불어난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가는데 13여일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상태라 겨우겨우 휴전선을 건너 이제 1km만 더 가면 북녘땅인 것을 안개가 잔뜩 끼어 있어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더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안개 때문에 방향을 잘 모를 때는 대남방송을 따라오라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날따라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여 5월 30일 아침 10시경 안개가 젓히며 해가 활짝 비치자 지형을 살피려 나섰다가 결국 민간인들에게 들켜서 특무대에 연락이 닿고 곧바로 트럭이 한 대 오더니만 한 무리의 경찰들이 선생님을 에워쌌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63년 9월 30일에 방첩대에 체포가 되서 하룻 동안 조사를 받고 서빙고동 특무대에서 또 1개월여동안 조사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후 신길동 미군들에게 넘겨져 다시 조사를 받고 반공법 15조를 적용받아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15년, 대법에서 15년 확정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계신 어느 날 ‘꼴통 대학생’이 들어왔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그 분은 바로 우리탕제원에 계시는 양희철 선생님이로 두 분이 한 방에서 잠시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은 북녘에서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실 김석형, 안영기, 최하중, 장병락, 조창손 선생님 등을 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서대문 형무소를 거쳐 모든 공안사범들이 대전형무소로 모이게 된 65년 5월경에 대전으로 내려오게 되었으니 당시 대전형무소에는 600~800여명이 모였지만 서로 만날 수 없고 간혹 인사만 나눌 기회가 있긴 했지만 그럴 때마다 많이 얻어맞고 하셨다고 합

니다. 선생님께서는 73년도에 전향공작 전담반의 공작에 의해 갖은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강제전향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15년 옥살이를 마치고 79년 1월 25일에 대구에서 출소하신 선생님께서는 옥에 계시는 동안 목공소에 출역하며 익히신 솜씨로 출소이후 목공일을 하며 최근까지도 지내셨다고 합니다.

출소 후 선생님께선 한동안 갯생보호소에 지내셨는데 그곳에서 만난 강창업선생님이 79년 음력설에 초대하는 사람이 있어 같이 가자고 하더니 교회로 데리고 가셨다 합니다. 그 교회의 김은숙권사의 집에 초대받아 가보니 온갖,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맛난 음식들이 많이 장만되어 있고 선생님을 반가이 맞아 주셨다 합니다. 그 인연으로 하여 3년여동안 교회에도 다녔고 김권사의 소개로 현재 부인이신 도봉순님을 만나 44세에 결혼을 하시게 되었다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사모님을 처음 만났을 때, 당신에 대해서 하나도 숨김없이 모두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친구분과 함께 선보는 자리에 나오셨던 사모님께서는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선생님의 말씀을 전부 듣고 나더니 평평 우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주 만나자는 말씀을 하였고 이후 선생님과 사모님은 가끔 전화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분간의 사랑이 깊어지면서 사모님댁에서 두 분 사이를 알게 되었는데 선생님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70년 당시야 어떠했을 것이며, 더군다나 선생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다면 결혼을 반대하는게 일반적이었으리라는 생각입니다. 예의바른 집안이고 사상적으로 반공은 아니나 북이라면 별별 떨던 사모님댁에서는 '이제 집안이 망했다'며 선생님을 보지 않으려 드셨다고 합니다. 결혼 후 3년여동안 거의 왕래없이 지내다 장인어른 묘 별초와 성묘를 계기로 조금씩 다른 가족들과도 만나게 되고 했는데 지금은 집안에서 제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셨다며 활짝 웃으시는 선생님의 모습이 친잔난만한 소년의 표정같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에게는 반쪽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난 59년 특수임무에 소환되어 지내던 중 휴가를 가게

되었는데 부대에서 '가서 결혼을 하고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여 고향에 가서 모친, 동생과 얘기를 하는데 동생이 입이 마르게 칭찬을 하는 여성이 하나 있었다 합니다. 강금옥이라는 이름의 그 처녀를 멀리서 본 선생님은 키도 크고 몸도 튼튼하게, 일하는 걸 보아하니 부지런히 참 잘하는게 마음에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59년 12월에 약혼을 하고 1년 후인 60년 12월에 다시 휴가를 나가 결혼을 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후 62년 2월에 얻은 따님이 홍역을 앓다가 1년 후 하늘나라로 가는 슬픔도 겪으신터라 63년 5월에 남쪽으로 내려와서도 딸을 잃고 사모님 혼자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전교도소에서 만난 김병호씨로부터 얘기들길 63년생 아들을 낳았다고, 사모님이 그리 말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하십니다.

선생님께서 그렇게 출소 후에 가정을 이루시고 목공일, 책장, 진열장, 컴퓨터책상 등을 학교에 납품하는 일을 하며 지내시다 동지들을 만나게 된 건 85,6년도에 민방위훈련을 나오라 하여 수도사업소마당에 비상소집해 있는데 그곳에서 대구교도소에서 같이 생활했던 김형구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고 민방위훈련이 끝나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여러 선생님들(신광현, 김병길, 김태수 선생님 등)의 소식도 듣고 또 이후에 그 선생님들의 결혼식에 가서 선생님들을 직접 만나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장기수선생님을 돕기 위한 바자회가 대구에서 열린 적이 있는데 그때 지금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공동대표이신 한기명 선생님을 뵈게 되었고 그 이후로 주욱 현재까지 젊은 일꾼들과 더불어 대구에서 열심히 못다한 통일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선생님께서선 현재 2차 송환을 희망하시고,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남쪽에 있는 가족들이 마음에 걸리신 듯 하였습니다. 어서 두 동강난 조국 반도가 하나가 되어야겠지만 그 전에 자유왕래라도 실현되어 선생님께서 신념의 고향 북쪽으로 혼자 가시더라도 남쪽의 가족들이 언제든지 선생님을 뵈러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하여

김현희 '후원회 소식' 편집위원

지난 6월 8일 이야기부터 해야 할까요? <민족민주열사 범국민추모제>가 있던 그 날,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권오현 회장님을 만나 다른 회원들과 함께 서대문 경찰서로 소위 '민혁명' 사건의 이석기님을 면회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회장님께서 “6.15남북공동선언을 잘 이행하기만 하면 이런 사건은



이경진님

만들 필요조차 없었을 것인데...” 하면서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이석기님께선 곳곳하게 앉아 미소를 지으며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실텐데 여기까지 오시게 하였다고 오히려 회장님 걱정을 하더군요.

그 좋은 '6.15공동선언'을 두고도 우리는 이런 어이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걸 보아야 하는지요..

7월 11일 목요일집회가 있던 날, 이석기님의 셋째 누님이신 이경진님을 만났습니다. 억울하게 갇혀있는 막내 이야기를 하시는 누님은 첫눈에도 부지런한 분으로 보였고, 세심하고도 다정한 분이셨습니다. 또한 남을 먼저 배려하는 가풍을 지니고, 믿음을 몸으로 실천해오신 가족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동생의 연행 소식을 들었을 때, 동생이 수배중인줄 몰랐다고 하십니다. 연행되었던 날 밤에 소식을 듣고, 다음날 아침 홍제동 대공분실로 찾아가 “무엇 때문에 잡아갔냐?”고 물었더니, 국가보안법에 의해 잡혀갔다 하더군요. 가기 전에 홍제동 대공분실로 연락하니, “빨간 벽돌집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곳이 뭐 하는데냐?” 묻자, 대답하지 않았고, 관공서냐고 물으니, 그래도 대답이 없더군요. 그래서, 여기가 ‘대한민국’ 이냐고 따지셨답니다.

처음 면회 할 때, 여든넷이신 어머님께서 막내에게 물으셨습니다. “신발은 신었냐?”, “양말은 신었냐?” 그러면서 아들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몸을 만져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면회가 끝난 뒤, “고문은 안받은 것 같구나.”라고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누나인 자신이 보기에도 이것이 모성이구나 가

슴이 메어지더라고요. 계획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저 본능적으로 혈육을 염려하고 본능으로 확인하는 그런 모성입니다. 그 뒤 매일 정성스레 여러 가지 종류의 죽을 썬가지고 막내 아들을 면회 가는 어머니의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선 40년 동안 <노인복지관>에서 봉사 활동을 하셔왔고, 작은 정성이나마 곳곳에 후원금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종이 한 장도 그냥 버리지 않으셨으며, 검소하시고, 어느 곳에서나 쓰레기가 보이면 당신께서 손수 줍고, 언제나 마을버스,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스무살 이상이면 어른이라고 누구에게나 존대말을 쓰며 남을 높이셨다고 합니다. 그런 어머님 밑에서 당연히 누님도 장애인을 위한 봉사 활동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동생이 잡혀가고 열흘 쯤 되자, 가족의 모든 행동이 감시당하고, 미행이 불고, 도청된다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동생이 홍제동 분실에서 서대문 경찰서로 옮겨져 면회를 한 뒤, 지하철을 타고 어머니 집으로 오려는데 형사가 전화로 “드릴 말씀이 있다.” 그러길래 누님은 “서대문에서 말하지 왜 지금 그러냐?” 하고는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형사가 현관 앞

에 먼저 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모친과 대화하고 싶으니 집안으로 들어가 이야기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승강기 안에 평범한 아줌마로 보이긴 하는데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기도 한 여자가 같이 올라가기에 “여기 사시냐?”고 물었더니, 그때서야 형사가 ‘우리 직원’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섬뜩했지만 일단 집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것저것 물어오는 것이, 이석기씨가 지니고 있던 편지가 누구 것이냐, 만년적이 있느냐, 이런 종류의 유도 심문이에요. 누님께선 그런 얘기라면 서대문에서 하지 또 뭐하는 것이냐, 참고인 조서 용지를 보자, 그쪽 신분을 믿지 못하겠으니 당장 나가라, 그랬더니 그제서야 다른 2명의 남자를 불러 영장을 제시하더라고요. 나중에 변호사를 통하여 알게 된 것인데, 그들이 말하는 증거품이라고 내놓은 것이 수배 1년 전에 어머님의 집에서 나온 쓰레기를 뒤져 찾아낸 것이더라고요.

여든넷의 노쇠하신 몸으로도 어머님께선 홍제동 대공분실 앞 집회에 계속 참여하셨는데, 가족들은 20일 집회 뒤, 기자회견담회를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6월 11일 당일, 경찰에선 그걸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봉쇄하려고 들었습니다. 그 날, 땀방 아래 여든이 넘는 팔순 노모께서 애를 태우며 기다리고 계시는데, 전경들을 내세워 막아놓고 형사들은 그늘에 앉아 나몰라라하고..

서대문 경찰서 앞 건너편에서 길을 건너려고 둘러싸고 있는 전경들에게 길을 내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책임자인 듯 보이는 자가 “밀어붙여!”라고 소리치더니, 경찰들이 어머님을 밀어 쓰러뜨려 놓고, 함께 있던 4명을 연행해갔습니다. 어머님께선 병원으로 가자는 누님의 권유에도 끌려간 “그애들도 자식”이라며 “죽는 한이 있더라도 풀려나는 걸 보고 가겠다.” 그러셨는데 몸을 가누지 못하고 토하시다가 119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 그것은 반인권적인 법이고 반인륜적인 비상식의 괴물입니다.

누님께 막내인 이석기씨에 관한 기억을 물었습니다. 유복한 집안이어서 초등학교 다닐 때도 양복 입고 구두

신고 다녔답니다. 종종 어려운 친구에게 신발을 벗어주고 실내화를 신고 집에 와서는 잃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똑똑한 아이여서 남들보다 3년을 먼저 초등학교에 가서 5살부터 학교에 다녔답니다. 체격도 좋고, 잘 생기고, 자랑스러운 막내였답니다. 외대 중국어과에 입학해서는 탈춤반에 들어가 학생 운동을 하였고, 우리 문화가 좋고 우리나라가 좋으면서 유학도 마다하였는데, 집안에서는 학생 운동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답니다.

누님의 아이 키우기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데모 한다면? ‘그 아이가 판단할 문제’라고 대답하십니다. 자기 행동에 책임감을 가지라고 말할거라 하십니다. 아이를 엄하게, 자율적으로 키운다고 하십니다. “바르고 정의롭게 커라.”, “세상을 더불어 살아라.” 이것이 누님께선 아이에게 강조하는 바라 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므로 욕심을 버리고 신의 섭리에 따라 성직자가 되는 것도 좋다고 하십니다. 누님의 신앙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 자유가 정착되지 않았는데도 ‘자유’라는 말만 대중화 되어있다 하셨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책임감과 함께 이 사회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로 비롯하여 자기 권리 주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종’이 되는 것이라고.

오늘, 7월 11일, 서울구치소에서 이석기님 면회한 것을 여쭙보았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어머님께서도 함께 면회하셨는데 3시간 이상을 들여 겨우 7분 면회하고 나오시면서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하네요. 누님이 보시기에 어떻드냐 하니, 이석기님이 “얼굴은 말랐는데 표정은 밝고 눈이 빛났고, 오히려 밖에 있는 가족을 걱정하면서 용기를 주더라.”고 하십니다. 동생의 자랑스러움을 남들에게 당당히 이야기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다, 민주화 운동은 계속 될 것이고, 새롭고 참신하게, 즐거운 운동이 되었으면 한다고 바램을 말씀하셨습니다. 

광주에서 우리 홈페이지로 날아온 회원

이창희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간사

1. 아침이 밝았습니다당...

“아침해가 뻗습니다. 모두들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조금 부지런한 사람은 벌써 일어나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도 있겠군요. 아직 꿈나라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도 있을 법하군요. 할 일을 미루어 놓았던 저는 날밤을 새며 밀린 일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아주 어설프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당.

--;

교수님한테 깨질 일을 생각하니 머리가 아파 오는군요.. ㅠ.ㅠ

4월 역사강좌 시간에 후원회에 처음 인사를 드렸었는데 벌써 1학기 강좌가 끝나고 여름방학이라니요. 세월 참 빨리도 갑니다...

1학기 마지막 역사강좌 마무리가 잘 되었듯이 2학기 강좌도 멋지고 알찬 내용으로 이어질거라 믿습니다.

흠흠~~~ 그리고 사실 중요한 것은 이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흠~~ 그러니까... 강좌 끝나고 뒷풀이 음식들이 참 맛있었다는 말을 하고 싶군요. 죽통주, 과일주, 보쌈, 닭죽. 참 간만에 먹어보는 맛깔스런 음식들이었습니다. 누가 그런 멋진 솜씨를 가졌는지.....”

이 글은 이일규님께서 7월 7일 회원교육강좌인 “한상권 교수님의 역사교실”에 대한 느낌을 홈페이지를 통해 올린 글이다.

그는 이렇게 민가협양심수후원회와 인연을 맺었다.

“안녕하세요. 광주·전남 양심수 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바우형님(학교 선배이자 광주·전남지역 양심수후원회원 이재익님)의 권유로 이곳에 가입을 하게 되



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먼저 인사를 드려서 죄송하구용...

불러주시면 달려가서 인사 여쭙 뵈겠습니다. 뭐 좀 많이 부족할지라도 지켜봐 주시고 모두들 좋은 하루 되십시오...”

2002년 4월 1일 우리 홈페이지에 인사글을 올리면서 서로를 알게 된 것이다.

2. 서울 상경

앞에서도 밝혀듯이 그는 원래 광주·전남지역 양심수후원회 회원이다. 이제 서울에 올라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신입회원으로 된 것이다.

2002년 대학교를 졸업하고 “광주·전남지역 사회단체에서 제일 좋은 곳”이라는 동아리 친구의 권유로 2001년 광주·전남지역 양심수후원회의 월출산 산행을 계기로 활동하게 되었다. 그 후, 각종 집회 행사 중심으로 결합하다가 사무실과 집이 상당히 가까운 탓에 사무실 짐정리할 때도 돕고, 함께 놀러가기도 하고 하면서 거리보다 더 가깝게 친해졌다. 사무국장이 학교 동아리 선배라고 했다.

그러다가, 서울에 있는 한양대 공대대학원 정밀기계 공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다. 특차에서 떨어지고 일반시험으로 붙었다고 한다. 대학교 다닐 적 평균 학점이 3.76이라고 한다. 그과는 학점에 매우 후한 듯 하다.

대학원은 서울에 있지만, 일주일에 두어번 수업만 들을 뿐 실제 생활은 연구실이 있는 안산캠퍼스에서 주로 하고 있으며, 그 근처에 하숙방을 얻어 지내고 있다.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 생활하기 힘들지 않느냐는 질

문에 “힘든 점이 있기는 있는데, 집에 있을 때 생각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서울 민가협양심수후원회에서 따뜻하게 서로 대해주는 것이 진짜 힘이 되요”라고 답했다. 지방보다는 더 개인적인 듯한 서울 문화가 조금은 맘에 걸리나 보다.

3. 소년수

일규가 민가협양심수후원회와 인연이 된 것은 어쩌면 필연인 것 같다. 민가협 명의의 영치금을 받아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1975년 전남 곡성에서 2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났으며, 초등학교부터 줄곧 가족과 함께 광주에서 지냈다.

1993년 조선대학교 정밀기계공학과에 입학하여 빈민 봉사동아리인 ‘한오라기’ 회장인 과 선배의 제안으로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되었다. 이렇게 그의 학생운동은 시작되었다. 광주항쟁의 기운이 서린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별다른 고민없이 운동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던 중, 그 해 11월 3일 광주 미문화원타격사건에 가담했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1학년의 어린 신분엔 집시 범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이 사건으로 광주 미문화원은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대단한 일을 한 것이다.

구속된 후 2개월 반 동안 광주구치소에 있었는데, 만 18세로 나이가 어려서 선고공판에서 광주소년감별소로 가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2주 동안 ‘소년범’으로 소년원에서 지내다가 사회에 나가도 좋다는 이른바 “좋은 등급 판정”을 받고 석방되게 되었다.

당시 감옥생활에 대한 느낌에 대해 “이해가 안됐다. 왜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하는가?”라는 반문이 계속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일규의 얼굴은 웬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 일로 집안문제가 생겨 휴학하고 군대를 갔다. 군대 갔다와서 집안 일도 돕고 하며 98년에 복학하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휴학도 하면서 아르바이트로 등록금도 벌고, 과학생회 활동도 하는 등 모범적인 대학생활을 하였다.

일규는 필자의 ‘모범적’이라는 말에 “아닌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유를 묻자, 학창시절 술을 많이 먹었다고 한다. 그는 “넌들 마시는 만큼” 한다는 술을 먹으면, ‘의리’를 중요시 여겨 한 번 먹은 사람과 끝까지 간다는 것이다. 그가 술에 취해 나자빠지면 자신도 나자빠진다는 소신이다. 이쯤에서 필자에게도 대충 느낌이 왔으니 우리 독자회원들도 느낌이 전해졌으리라 믿는다.

굳이 첨언하면 몸상태가 좋은 날은 “한없이 들어가요”라고 했다. 그 탓인지, 일규가 처음 민가협양심수후원회에서 산행하는 날, 새벽 4시까지 술을 먹은 그가 늦에 온 탓에 11시가 넘어서야 일행은 산을 올랐다. 그래도, ‘젊어서’ 몸이 좋아 무리없이 산행을 마쳤다.

4. 앞으로

“잠시 스쳐가는 곳이 아닌 것 같다. 졸업하고나서 서울·경기에 직장을 잡으려하는데, 내가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실천자리를 계속 이 곳에서 찾았으면 좋겠어요”

공부하랴, 후원회 활동하랴 바쁘지 않느냐는 예의상의 질문에 대해 “별로 그렇지 않아요. 후원회 활동 안하면 오히려 정신적으로 지칠 것 같아요. 그냥 휴일에 집에서 텔레비나 보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는게 좋은 것 같아요.”라고 정성을 다해 말한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가 광주·전남지역 양심수후원회에게 한 톱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보내주었으니 말이다. 실제 그는 6.10항쟁기념 마라톤대회에서 5Km가 넘는 구간의 대부분을 깃발을 든 기수로서 완주했다. 한마디로 신입기둥이다.

후원회 분위기에 대해 “아직까지 좋다.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그에게 많은 믿음이 간다. 한 선배가 얘기한 “운동이란 상식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사는 일규에게 어서 빨리 좋은 동지이자 애인이 생겼으면 좋겠다. ✎

더욱 더 튼튼한 전사로

존경하는 이진님께

이렇게 글을 쓰면서 어쩐지 게면쩍고 면목없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권오현 회장님과 양심수후원회로부터 그 누구보다도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으면서도 게으름때문에 편지 한 장 제대로 보내지 않고 지내다가 이렇게 이진님으로부터 편지를 받고 보니 쥐구멍을 찾고픈 심정입니다.

이진님의 편지를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진님과의 인터뷰기사도 잘 읽었습니다. 이진님의 편지와 인터뷰 기사를 읽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또 부럽기도 하였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데 과연 내가 이십대였을때 이진님처럼 순수하였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순수하고 아름다운 청춘시절을 보내고 계시는 이진님이 부러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옥생활을 하다보면 답답할때도 있고 울분이 솟구칠때도 많지만, 전반적으로 밝고 명랑하고 씩씩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징역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흔히들 여름징역이 힘들다고 하는데 신영복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여름징역이 힘들다는 얘기는 한 방에 여러명이 생활하는 혼거수용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저는 0.9평의 방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혼거수용자들보다는 조금 나은 편입니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거실내에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나은 여름징역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징역생활속에서 만나는 자연적 고통이야 뭘 그리 힘들

겠습니까? 감옥살이의 고통은 그런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동지들과 투쟁의 일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사실로부터 오는 단절의 고통에 있습니다. 징역살이 그 자체도 투쟁의 하나라고 자위해 보지만 그렇다고 위안이 되지는 않습니다. 동지들과 함께 어깨걸고 투쟁한다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것인줄 감옥에 와서야 비로소 절절하게 느꼈습니다.

매달 오는 양심수후원회 소식지를 참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식지에 담긴 글들속에는 뜨거운 역사가 살아있고, 따스한 인간의 가슴이 녹아있고, 아름다운 생활이 담겨 있어서 좋았습니다.

보내주신 사랑과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감옥살이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결코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않고 더욱 더 튼튼한 전사로 거듭 태어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진님과 양심수후원회 모든 사람들 모두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02. 6. 27

부산교도소 박 경 순 드림

● 박경순님은 소위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1998년 7월 25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7년형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 144번으로 수감 중입니다. 간경화라는 중한 병을 지닌채 힘든 수형생활을 5년째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석방을 기원합니다.

항상 진정과 진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혜신언니에게

언니, 저 숙희예요. 투덜이 숙희요. 무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감옥은 여름과 겨울 두 계절밖에 없다잖아요. 번번찮은 선풍기 한 대도 없을텐데... 그래도 제 기억속의 언니는 항상 씩씩한 윈더우먼이었으니까 건강하게 잘 계시리라 믿어요.

지난 4월 선고 재판 때 언니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깜짝 놀랐어요. 언니가 당연히 나올 줄 알고 저희 92학번들은 언니 석방 축하 자리를 어떻게 만들까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편지라도 써야지 항상 마음은 있으면서도 막상 손과 발이 안 움직여져요. 신영복 선생님도 머리보다 손을, 손보다 발이 먼저 쓰라고 그러셨는데 말이에요. 이전에 언니한테 미리 편지라도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부끄럽게도 이렇게 공개편지(?)를 쓰게 될 때까지 와버리고 말았네요.

기억 속에서 언니는 항상 짧은 커트 머리, 청바지에 운동화, 그리고 약간은 허스키한 모습으로 등장하곤 해요. 언니가 마이크를 잡고 씩씩하게 연설하는 모습을 수줍은 여학생처럼 지켜보곤 했었는데... 언니는 역시 커트 머리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 머리를 길렀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학교 다닐 때 언니와 그리 많은 얘기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전 항상 언니가 있던 자리에 함께 있었을 거예요. 비록 당선되지는 못했지만 언니가 총학생회장 후보로 출마할 때 선거운동원으로 뛰었고, 언니가 지휘하는 각종 집회에 참석했었을 테니까요. 저는 대학원을 졸업한 후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학교 다닐 때 겪었던 이십대의 소중한 추억들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신문도 꼬박꼬박 읽고 여기저기 가끔 기웃이기도 하는데, 점점 무더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지금 나이쯤 되면 무언가 확실한 삶의 목표

와 보람을 찾아 매진하고 있을 줄 알았어요. 삶이란 끊임없이 갈구하고, 찾고, 만들어가야 하는 것인가 봐요. 이렇게 말하고 보니 제가 나이 지긋한 중년 여인이 된 것 같군요. 요즘 들어 부쩍 나의 직업과 나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그런가 봐요. 이런 생각을 하다보면 가끔은 언니처럼 굳건한 신념으로 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과 얘기하고 싶어져요. 후회는 없었는지, 갈등은 없었는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언니가 나오면 만나서 꼭 물어볼게요. 그래도 되죠?

원고 마감이 끝나면 제가 가입한 각종 커뮤니티와 사이트를 뒤져가며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운동단체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검색해보곤 해요. 오늘은 시간이 좀 한가해 편지 쓰기 전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해 사건을 동영상으로 꾸민 자료를 보았어요. 여중생의 이름이 신효순, 심미선이래요. 자신들의 꿈을 적은 낙서장과 어릴 적 사진, 부모들이 오열하는 모습을 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구요. 뉴스로만 접했을 때는 주한 미군이 저지른 또하나의 사건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들의 이름 석자를 하나하나 떠올리고 나니 나와 아주 가까운 일로 느껴지더라구요. 객관적인 시각도 필요하지만 보다 중립적인 것은 진심어린 시선 같아요. 항상 진정과 진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려고요.

쓰다보니 너무 두서가 없어져버렸네요. 그래도 부족한 후배의 진심이라고 생각하시고 예쁘게 봐주시길... 건강하시구요. 언니를 빨리 만날 수 있기를 바랄게요. 학교 후배들은 지금 검게 그을려가며 농활을 진행하고 있겠죠? 농민들과 후배들의 순박한 웃음이 생각나요.

2002. 7. 9

후배 숙희

● 문숙희님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편집위원으로 현재 '민족21' 등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기는 길고 면회는 짧다

이정태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

아 아침부터 부산하다.

오늘 안동교도소부터 면회를 하기위해 6시30분에 양재역에서 허니(권오현 회장님의 애칭)와 광회를 만나기로 했는데 그놈의 월드컵이 뭔지 어제 준결승에서 독일과의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지는바람에 화살을 한테 다 잡까지 부족해 비몽사몽이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1박2일 전국순회 양심수면회인데 컨디션이 말이 아니다. 하지만 통일독일이 동강난 반쪽의 우리나라를 이기는데야 화살을 안 할 수가 없었다.

각설하고, 이번의 면회일정은 오래전부터 내가 소속된 민족무예 '경당'의 사범이었던 최진수씨로 인해 알게 된 '민혁당' 사건의 관련자들을 우선으로 하기로 했다. 내가 그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건 최근에 국가보안법 관련으로는 드물게 실행량이 많은 사건이라는데 의미를 두고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양심수들은 공안관련수로 분류되는데 민혁당은 공안수로 분류하고 있다는데 다른 의미를 갖기도 해서다.

여섯시 반에 양재역에서 출발해서 소백산 밑을 지나 안동교도소에 도착한건 아홉시가 조금 지나서였고 김경환씨와의 면회가 시작된건 아홉시 반이 다 되어서였다. 김경환 동지와 작년 초에 처음 만났을 땐 처음이라 약간 서먹했었는데, 이번엔 단지 두 번 째일 뿐인데도 마치 오랜 친구처럼 반갑다.

그러나, 우리의 허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통일문제, 남북관계, 국보법문제 등 바깥세상 알려주기에 바빠 내게는 말 할 틈도 주지 않는다. 나는 겨우 끝날 무렵에야 다른 동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고는 또 이별이다.

다음은 우리의 허니가, 한총련불탈퇴힘의로 수배되어 교생실습 중에 연행된 김정희씨를 만나자고 해서 대구구치소로 먼저 향했다.

대구구치소에 도착한건 열두시가 훨씬 넘어서였다.

도착하자 미리 연락해 두었던 최윤진이 기다리고 있

다 나와서 반겨준다. 윤진이는 수배중일때 명동성당에서 우리 양심수후원회원들과 인연을 맺은 동지인데, 그때도 귀엽고 예뻐지만 지금은 훨씬 예뻐졌다.

오랜 시간 기다리다가 만날 수 있게 된 김정희 동지는 가녀린 인상의 여학생이었는데, 걸모습과는 달리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걱정해주는 골은 성품의 사람이었다. 그러고는 자신도 나가면 더욱 열심히 살겠노라고 강한 신념을 보였다.

아직 미결인 그녀가 이 글을 읽을때쯤이면 석방되어 밖에서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나는 이쯤에서 후세에 길이 남을 명언을 하나 남기지 않을 수 없었다.

‘대기는 길고 면회는 짧다’

면회가 끝나고 오후 두시가 지나 서둘러 점심을 먹고 허니와 광회는 대구 양심수후원회 사무실에서 장기수선생님을 취재한다고 해서 내려주고 길 안내를 해주겠다는 대구양심수후원회의 원영민씨와 함께 심재춘씨를 면회하기 위해 대구교도소로 향했다.

심재춘씨는 지난 5월11일 다른 사람이 접견신청을 하고 나는 약 10초쯤 얼굴 본 게 전부인데 나를 기억을 한다. 초면이라 서먹할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러면 구면 아닌가.

사실 대화는 처음인데도 나를 친한 선배 대하듯 한다. 이럴 때 철창이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술 한잔 나누지 못하게 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면회가 끝나고 대구양심수후원회사무실로 돌아가 허니, 광회와 함께 대구양심수후원회장님이 사주신 저녁을 술 한 잔을 곁들여 잘 먹고 허니와 광회는 서울로 향했다.

나는 새벽에 광주에 도착해서 잠깐 눈을 붙인 후, 아침에 광주교도소에 가서 무예의 길을 걷는 오랜 동료이자 벗인 최진수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금강산에

서 열린 6·15 두돌기념행사에 다녀왔다고 내가 자랑삼아 말하자, 석방되면 금강산에서 가지고 온 들쭉술 한 잔 하자고 너스레를 떤다.

나는 ‘그거 좋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속으로는 ‘통일 되면 금강산, 백두산, 묘향산에 두루 돌아다니면서 술과 함께 우리 산천을 노래하자’고 생각해본다.

다음은 전주교도소로 최근에 이감된 임태열씨.

어제 전화통화 할때 임태열씨의 부인 박윤희씨를 전주에서 만나 같이 면회를 하기로 했는데, 아침엔 올 수 없다고 한다. 갑자기 위경련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동안 임태열씨의 동지 이석기씨가 연행된 것에 대한 항의방문이며, 또 지자채 선거며 해서 바쁘게 살던 몸에 무리가 되었나보다. 다음차례에 만날 하영옥씨의 부인 김소중씨도 몸이 조금 불편하다던데...

하지만 그들이 있기에 그들의 남편들이 당당하게 신념을 지키며 살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양심수들은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에 교도관들조차도 감화받기 일쑤다. 임태열동지는 서울 구치소에서 한번 만나고 두번째 만남인데 참 밝고 재미있는 성격의 소유자다. 아직은 이감된지 얼마 안되지만

조만간 그렇게 될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전교도소에서 복역중인 하영옥 동지가 남았는데 면회 마감시간이 빠듯할 것 같아서 서둘러 대전으로 향했다.

하영옥씨는 최근에 두번의 연이은 단식투쟁 등 교도소와의 싸움중이었다.

나는 양심수들은 죄수들과 달리 교도소 밖의 일반인과 같은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해롭게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생각하는 진리를 추구하고 양심을 저버리지 않아 권력자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일본인 간수조차도 그에게 감화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조선인 간수가 안중근 의사를 괴롭힌다면 그것은 자신이 권력자에게 기생해서 살아가는 비굴한 삶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변명을 위해서일 것이다.

혹자는 지금은 일제때하고는 다르다고 변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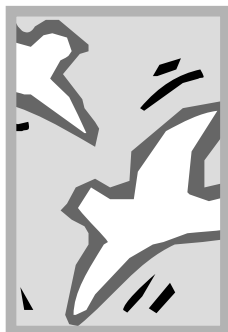
그렇다. 확실히 그때하고 대상은 바뀌었다.

하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단언컨대 “모든 양심수들은 범죄인이 아니다.”

누가 옳은지는 역사가 심판 할 것이다. ✎

양심수후원회 소모임 소개



현재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에는 여러 소모임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 ▶ 회원교육과 시사강좌 등을 진행하며 더불어 배우는 ‘시사모임’ (송창학 016-235-3726)
- ▶ 우리의 새로운 얼굴로 널리 등장할 ‘홈페이지관리모임’ (장재영 02-977-8363)
- ▶ ‘후원회 소식’을 만들며 글쓰기를 서로 나누는 ‘편집모임’ (이승미 016-395-0725)
- ▶ 장기수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장기수선생님후원모임’ (이정태 017-281-5500)
- ▶ 양심수와 따뜻한 공감을 형성하는 ‘양심수에게 편지쓰기모임’ (고광희 017-230-7593)
- ▶ 회원들의 다양한 참여를 일구어내고자 하는 ‘회원사업모임’ (노혁 019-323-0598)

회원 여러분의 관심어린 애정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짜짜 짹 짹 통일조국!

심민규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신입회원

연구원에서 눈이 아플 정도로 집중을 하고 컴퓨터와 씨름을 하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다.

한 번 헛갈리면 10분 정도 많게는 30분을 다시보야 하는 꼴치 아픈 단순작업이라 망설이다 전화기를 열었다. 창희형이다. 오랜만에 걸려 온 반가운 전화 한 통, 그렇

게 장기수 선생님들과 후원회 식구들과의 산행을 시작하게 되었다. 산행 전날 단국대 활동가 조직사건 및 한총련 대의원활동으로 구속되었던 친구의 석방 환영모임에서 술을 너무 과하게 먹은 탓으로 첫 산행부터 지각을 하고야 말았다. 먼저 오신 회원분들과 선생님들을 기다리시게 한 것이 너무 송구했다.

산, 난 산중에서 여름산을 가장 좋아한다. 가을산의 단풍, 겨울산의 운치, 봄산의 연한색 새싹들보다 울창한 숲에서 느껴지는 신선함이 좋다. 수락산은 울창한 숲은 아니었지만, 흐린 날씨에 조금씩 내리는 안개비가 여름산 특유의 시원한 냄새를 더하게 했다.

등산로는 예상외의 난코스였다. 나와 표정이의 첫 산행이라 신경쓰이시는지 여지껏 산행중에서 이런 힘로는 처음이라 하신다. 신고 온 운동화는 물기에 자꾸 미끄러지고, 바위를 짚고 오르다 보니 손바닥도 아프다. 그리 크지 않은 산이라 만만하게 보고 온 내 잘못이다. 다음번 산행엔 만반의 준비를 하리라... 연세가 있으신 선생님들께서 나보다 더 가볍게 산을 오르신다.

오르는 도중 학림사에 들렀다. 한상권 교수님께서 절



맨 왼쪽에서 있는 이가심민규님입니다.

의 규모나 구조, 각 건물의 의미와 이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다음 번 산행에서 절을 만나면 무심히 경관만 보지는 않을 것 같다. 너른 공터에서 자리를 펴고 점심을 먹었다. 들쭉술과 막걸리를 곁들여 먹는 표정이의 김밥이 참 맛있었다. 목표지점에 거의 다다를 무렵 권오현 회장님께서 내친김에 정상까지 오르자고 하신다. 예구구... 힘들지만 목표가 커졌다는 것이라 나름대로 해석하고 수락산 정상을 향했다. 독일전에 패하긴 했지만 월드컵의 열기는 산에서도 여전히 그 위력을 발휘했다. 짜짜 짹 짹 "통일조국!" 창희형의 주도하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외쳤다. 인천에서 왔다는 학생들이 가세하면서 우렁차게도 수락산 자락에 울려 퍼졌다.

흐린 날씨라 먼 곳까지 선명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멀리 한강이 보였다. 한강이 보이는 쪽이 남양주고 그 서쪽이 서울, 그 위쪽이 의정부겠지... 세 도시의 경계가 함께 만나는 정확한 지점이 갑자기 궁금해졌다.

하산길은 장암역쪽으로 정하고 내려갔다. 매우 가파르고 미끄러워서 올라올 때 보다 배는 힘들게 느껴졌다. 작은 계곡에서 얼굴을 씻고 발을 담그니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산행 뒷풀이는 올갱이 해장국으로 저녁을 먹으며 자기소개를 하고 6·15 금강산 민족통일대축전에 다녀오신 이정태 운영위원님의 보고를 듣는 것으로 끝났다. 생일을 맞으신 분이 있었는데 생일잔치에는 참가하지 못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지난해 금강산에 다녀오고 난 후 첫 산행, 그래서인지 수락산을 금강산과 비교하게 된다. 두 산은 명성이나 크기의 차이점과 화려함의 정도가 다르고, 공통점은 큰 나무가 없고 바위가 많다는 것과 등반코스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수락산에 다녀온 후 금강산 생각이 계속 난다. 특히 만물상에서부터 해금강에까지 줄곧 나와

함께 다니며 조국통일에서부터 연애이야기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북쪽 관리인 이일남씨가 자꾸만 떠오른다. 꼭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금강산에 이일남씨와 다시 올라 수락산에서처럼 “통일조국!”을 외치고 싶다. 둘이 동지로서 약속했던 일들을 꼭 지켜야 하는데... 요즘 세상이 너무 어수선한 것 같다. 🌪



알립니다

한총련 합법화 문화제

“〈1254〉 7·20한총련합법화문화제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일시 : 7월 20일 저녁 7시

장소 : 연세대학교 노천극장

간한 청춘들을 노래하고 저들의 꿈과 아픔을 다시 되새기는 곤혹스런 자리입니다만, 정중히 귀하를 초청합니다.

한총련의 이름을 빌어 우리 시대 일그러진 우리들의 자화상을 만나려고 합니다. 한총련의 이름을 빙자해서 닫힌 미래를 뚫어 평화와 인권이 꽃피는 새날을 당겨보려고 합니다. 함께 고뇌하고, 함께 이 아픔을 향한 춤과 노래를 나누지 않고서는 국가권력의 이름으로 생각이 다른 이들을 탄압하는 못된 이 시대의 질병을 고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셔서 함께 자리해 주시면 우리 모두를 슬프게 하는 이 시대의 병을 치유하고 우리들의 간한 미래를 자유케 하는 일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 왜 〈1254〉인가?

문화제 명칭인 〈1254〉는 한총련 활동과정에서 이적규정 관련으로 사법처리된 학생들의 숫자입니다. 올해들어 구속된 숫자까지 더한다면 〈1254+4〉가 되어야 했겠지요. 〈1254〉는 이렇듯 비정상적인 한총련탄압의 상징이자 우리사회 양심의 척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관 : 한총련 합법화 범사회인 대책위원회, 10기 한총련

주최 : 천주교인권위원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전대협동우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후원 : 민주사회를위한헌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화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민족민주학생회생자추모(7)년)단체연대회의 민족화해저주통일협의회 민주개혁국민연합 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통일광장 통일맞이 통일연대 한국청년연합회 한총련학부모협의회 대학생신문 시민의신문 오마이뉴스 월간민족21 월간자주민주 유뉴스 참여사회 통일뉴스

출연 : 김원중, 이정열, 아줌마노래단, 희망새, 우리나라, 밴드〈가객〉 외 다수

7월 산행



이번에는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로 갑니다. 의정부 소요산입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멀리서 모입니다. 부지런히 여름 산행을 해서 시대의 거울을 이길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 봅시다.

일 시 : 7월 21일 일요일 오전 9시

장 소 : 의정부역 매표소

만나는 곳 : 회비 3000원, 도시락 등

차 편 : 지하철 1호선

회원교육강좌

이번 한상권 교수님의 ‘역사교실’은 8월에 방학입니다. 그리고, 9월 8일부터 이른바 2학기 해방이후 현대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역사강좌 1학기 종강하던 날

김민정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원

‘라마순’이라는 마치 성인의 이름을 떠올리게 하는 태풍이 이름에 걸맞지 않게 2-3일 한반도를 강타했지요.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있었던 것은 물론이구요. 7월7일 시사모임이 준비하고 있는 ‘역사강좌’ 1학기 종강파티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내내 염려되었답니다. 그들은 거창하게 가든파티를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난 시사모임 하루 자원봉사자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시사모임 회의에 우연히 참석하게 되었는데, 맛난 음식을 사주며 회유하는 그들을 뿌리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일요일 아침 9시에 시사모임 사람들을 낙성대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휴일이라 방심했던 탓일까요, 일어나보니 9시가 다 되었지 뭐니까? 마음은 바빴지만 먼저 창문을 열고 하늘을 물끄러미 보았습니다. 맑게 개인 푸른 하늘, OK!

서둘러 준비하고 낙성대로 향했지요. 이미 사람들은 회원들과 함께 나눌 ‘먹거리’를 준비하러 장을 보러 갔답니다. 게으름을 타하며 망연자실 앉아 있는데, 양손 가득 무거운 짐을 들고 이창희 간사, 수정이, 진이가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주메뉴는 보쌈과 삼계탕이래요. 무더운 여름, 회원들의 건강을 염려한 시사모임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딸그락 딸그락 익숙치 않은 솜씨로 이것저것 준비를 하는데, 저절로 흥이 나더군요. 회원들과 함께 할 생각에 마음이 들떴던 모양입니다. 내놓을 그릇을 정리하는데, 굉장하더군요. 낙성대 주방살림 총출동!

2시 10분 이창희 간사와 함께 하는 어설픈 ‘노래교실’로 역사강좌 7강의 막이 올랐습니다.

8·15해방과 자주독립국가 건설’이라는 주제로 어느때와 다름없이 한상권 교수님의 열띤 강의가 진행되었고, 회원들의 불타는 학구열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한민족의 유구한 역사속에서 ‘민족분단’은 익숙치 않은 불청객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는

‘분단현실’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민족분단’으로 사학자들은 한국현대사를 총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고, 현대사는 반공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심각하게 왜곡되었지요. 그에 따른 후유증은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와 진보를 가로막고 있구요. 그러나 1987년 6월 항쟁이후 현대사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발굴,복원되고 있다니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역사를 꿰뚫어볼 수 있는 혜안’ 그리고 ‘철저한 역사인식’으로 분단의 장막을 하루빨리 거둬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삼 ‘역사강좌’의 의미가 더욱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드디어 1학기 종강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장소는 만남의 집 푸른 잔디밭이에요. 준비한 음식을 나르는 회원들의 손길이 바빠지고, 금세 푸짐한 잔칫상(?)이 차려졌습니다. 바람은 시원하고 회원들은 이곳저곳에서 이 야기꽃을 피웁니다. 지난 6월 금강산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주년 기념행사’에 다녀온 노래패 우리나라의 카수 상희언니는 ‘우리는 하나’라는 멋진 노래를 선보였습니다. 한소절 한소절 따라부르며 ‘통일의 꿈’을 가슴 가득 품어봅니다.

1학기 역사강좌를 정리하며, 여러 선생님들의 말씀과 회원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진행하신 한상권 교수님의 고백, “학교에서 보다 역사강좌를 위해 더 많이 공부합니다.”라는 말씀에 모두들 감탄사를 연발했지요. ‘현대사의 산 증인이신 장기수 선생님들’께서 학생으로 앉아 있는 역사강좌가 어찌 학교 수업과 같을 수 있었겠어요?(한상권 교수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역사’라는 거대한 화두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모였습니다. 참으로 귀한 만남이 아닐 수 없습니다. 8월은 휴가 받아서 한달 쉬고, 9월부터 ‘역사강좌’는 계속 됩니다. 푸른 가을날 다시 만납시다. ✨

6·15남북공동선언 두돌 기념 민족대축전 행사 참석 후기

송경용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 봉천동 나눔의 집 신부님

1. 최근 벌어지는 서해교전, 미군에 의한 여중생 살인사건 논란을 보면서 금강산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평화롭고 따뜻하며 아름답게 진행되었던 그 행사와 최근의 비이성적 논란을 보면서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거리'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물리적, 공간적 거리와 심정적 거리. 지금의 우리에게는 둘 다 만만치 않은 무게를 지닌 거리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한 시대, 한 공간 안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인가.

달을 쳐다보는 사람과 손가락을 쳐다보는 사람만큼이나 큰 차이입니다. 진리를 추구했던 사람들, 진리 그 자체이었던 사람들과 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과의 차이. 긴 역사 가운데 그들 모두 우리에게 빛과 그림자로 교훈을 주고 있건만 오늘 또 다시 어두운 그림자로 빛을 덮으려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과 집단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실제적 진실마저 왜곡해 버리는 그들의 교설과 독설들, 듣고 볼때마다 숨이 켜져 막혀옵니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 하였는데 아마도 그들의 마음자리에 들어있을 전쟁과 불신과 증오의 악귀들이 어서 빨리 저 푸른 서해와 태평양으로 풍당 빠져 사라지기를 기원해봅니다.

2. 6월 13일 이른 아침 경복궁 동편 주차장에 모



여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권오현 회장님, 임방규 선생님과 범민련 선생님들, 하루 전날 불허가 되어서 안타깝게도 함께 갈 수 없었던 양희철 선생님, 전국연합지도부, 진관 스님, 권낙기 선생님 등이 환송차 나와 계셨습니다. 대표단이나

환송하는 분들이나 모두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시기도 어려운 시기였고 행사를 성사시키는데 많은 난관이 있어서였는지 기대도 컸고 바램도 많았습니다.

간단한 인사가 오가고 통일연대의 성명이 발표되고 나서 버스에 올라 속초를 향했습니다.

3.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준비한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우고 배를 타러 가는데 거기서부터 기분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에 나가는 것처럼 수속을 하고 철차를 밟으려 하니 '내가 지금 외국에 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이나 국제법상으로 그렇다 치더라도 심정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고향이 북녘이고 금강산은 어머니가 학창시절 수학여행을 다니시던 곳이기도 한데... 나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외갓집 다니러 가는 기분인데, 다른 나라 여행할 때나 똑같다니... 정말 엄중한 현실 앞에 맞닥뜨리면서 기분이 영 개운치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가까운 지름길 놓아두고 멀고먼 공해상으로 나갔다가 다시 장전항으로 향하는 배 안에서는 '이게 뭐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불쑥 일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진전인가, 지난 수 십년을 생각해보면 정말로 큰 위안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4. 드디어 도착해서 북측 출입국 시설에 줄을 맞추어 서서 다시 한번 외국 공항에서처럼 수속을 밟고 버스를 타고 숙소에도착했습니다. 미리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숙소는 현대건설 직원들이 사용하던 컨테이너 시설물을 개조한 것이었습니다. '천출명장(天出名將) 김정일'이라는 한글 글씨가 굵게 새겨진 금강산 바위가 숙소 뒤로 보였습니다. 배정 받은 숙소에서 짐을 풀고 잠깐 밖에 나와 큰 숨을 들이켜고 나니 공기도 상쾌하고 피로도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기 전부터 나오실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장기수 선생님들이 나오시면 좋겠다는 혹시나 하는 기대가 일면서 지난 10년동안 그 분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이곳 북녘,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 먹기 전에 도착한 참으로 가까운 이곳을 그 분들은 30년, 45년이 걸려 도착했으니 참으로 모진 세월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못 알아들을 말 하나도 없고 생김생김도 똑같은 사람들이 사는 이곳, 산전경계도, 풀 포기 하나도 다를 것 하나 없는 이곳, 잠깐 깜빡잠 자고 나면 도착하는 이곳을 오는데 그래 30년, 45년이 걸리다니. '내가 너무 편히 온 것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고난을 딛고 나는 여기에 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다가 저녁 먹을 시간이 되어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5. 아침이 되고 시간이 흘러도 진행자들로부터 일정이나 행사내용에 대한 안내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모두 궁금해했지만 그저 무슨 연유가 있겠거니, 때가 되면 알려주겠지 하는 생각들로 잠자코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어서 알았지만 그 시간에도 행사에 대해 북측과 계속 협의 중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마라톤, 씨름 등의 친선 게임을 제외한 일정에 대해 무슨 일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 수 없는 일들은 서울로 돌아오는 순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각 지역, 부문, 단체들의 대표이고 수 십년동안 통일, 사회 운동에 헌신해온 머리가 흰 원로들도 계셨지만 소외감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올라오는 배 안에서 평가회를 가지기로 하였다는데 어인 일인지 아무 일도 없었고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저 일요일이었던 관계로 몇몇 독실한 신자들이 주선하여 각 종교별로 배 안의 비어 있는 노래방이나 카페에서 따로 예배를 드렸을 뿐입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도 각자 배정된 대로 타고 왔을 뿐 행사를 진행하는 실무자들은 숙소에서 따로 모인다고 한 명도 타지 않았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었고 조금은 황당하기조차 했습니다. 아마도 각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니까 처음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알아서 잘 하겠고 설명하지 않아도 통일에 대한 열망에 충일해 있고 각자 잘 느끼겠지라고 너무 믿었던 것 같았습니다.

6. 설명도 없고 숙소 밖으로도 못 나가고 길 양 옆으로 철조망이 쳐져있는 풍경 이외에는 볼 것도 없는 따분한 시간이 지나고 본 행사가 시작되면서 모두 흥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북측, 해외인사들이 참여하였고 행사 내용도 진지하기도 하면서 재미있기도 하였습니다. 계속되는 다채로운 공연과 부문별 모임, 만찬, 등산 등이 이어지면서 '아, 이래서 자주 만나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6.15남북 공동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재확인하고 앞으로의 실천 과제들에 대한 합의를 낭독하면서 행사는 절정에 이르렀고 김정숙 휴양소 옆 금강산 출발에서 함께 도시락을 먹으면서 진행한 각 부문별 모임과 친선 모임, 반주를 곁들인 오찬, 만찬에서 진지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양심수 후원회'에서 왔다는 것, 장기수 선생님들에 관한 이야기 등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고 만나는 사람마다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으며 남측의 많은

회원들에게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중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고 계시는 리인모 선생님의 따님을 만나 뵙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으며 만수대 창작 예술단 단장과 '청춘송가'의 작자를 만나서는 선생님들의 근황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한 분 한 분마다 전속 작가가 배정되어 그 분들의 일대기를 책으로 펴내고 있으며 남측에서 도와준 분들의 이야기가 반드시 실릴 것이라고도 하였습니다. 현재 열 다섯 분에 관한 책이 이미 출간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고평일 선생님은 지난 3월에 따님을 얻으셨고 잘 믿기질 않았으나 86세 김석형 선생님이 새 장가를 드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혹시 68세라고 속이셨나?)

특히 행사 기간 내내 평양 예술 출판 부사장으로 계신 이우영 선생과 가깝게 지냈는데 정말로 따뜻하고 인자한 분이셨습니다. 대단히 사색적이고 조용조용 하셨습니다. 다양한 화제, 특히 음악, 문학, 생활 등에 대해 솔직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7. 행사에 참여한 많은 주민들과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취재차 나온 민주조선 신문의 논설위원, 기록 영화소 촬영기사, 감독, 청년 대표들, 평양 예술학교 중·고등·대학생들, 일본 조선 학교 학생들, 미주와 유럽, 중국에서 온 해외 동포들도 반갑게 만났습니다.

특히 북측 주민들과 학생들, 남남 북녀라는 말이 실감나게 하는 미모의 여성 안내원 동무들 모두 너무나 순박하고 친절하였습니다. 함께 춤추고 노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일순 남측에 사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이들은 그대로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박함, 꾸밈없는 미소, 친절함 등등.

무한경쟁 사회에서는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늘 그리움이었던 이 인간적인 성품을 금강산에서 보았습니다.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반쪽을 만나 비로소 완전하게 된 동그라미처럼 우리도 서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던 만남들이었습니다.

8.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튀어나오는 미국의 폭격과 전쟁에 대한 공포는 상상 이상으로 큰 것이었습니다. 특히 전쟁에 대한 공포는 극도의 것이었고 진실로 평화를, 우리끼리의 통일을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쪽에서 비행기 한 대 뜨면 우리도 떠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름도 없고 쌀도 없는 상황에서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팀 스피릿 같은 훈련은 우리 피를 말려 죽일 작정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말이 단순히 정치적 수사로만 들리지 않은 이유는 만난 많은 분들이 쌀 문제에 대해 절박한 호소를 하였고 특히 어린 학생들의 얼굴 색과 키가 남측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인지 모르지만 정상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참가한 누구나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와 더불어 금강산 주변 마을의 모습과 농사하는 모습, 주택,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모두들 가슴 아파했고 속앓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9. 금강산은 역시 아름다웠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참으로 맑고 깨끗한 산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으로서 가려면 가고 싶지 않은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너무 많은 제약이 있었고 숙소 밖 근처를 나가서 산책 할 수도 없고 숙소에서 금강산 가는 길을 따라 철조망이 쳐져있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길을 지나간다는 것은 또 한 번의 분단을 경험하게 하였고 때문입니다. 숙소에서 배를 타고 공해상으로 나갔다가 가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게 해서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통일 교육장이 아니라 반공 교육하는데 더 효과가 크겠구만! 이라고 할 정도로 불편하게 보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역사적으로 큰 진전이고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좀 더 열려지기를 고대해 봅니다. 물론 지금은 그마저도 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큰일이지만.

10. 금강산에서 남측 대표단 중 한 분이 바위에 새겨져 있는 큰 구호들을 보고 '자연훼손 아닙니까?'라고 물어보자 안내원이 '거이가 뭐 훼손입네까. 남조선에서 하는 깎아뺄개는 개발이 훼손이지요. 우리는 자연에 생명을 불어넣은 겁네다!'라고 응수하였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통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만나면 통일인데 떨어져 있으니 오해가 쌓이는 것 같았습니다. 자주 만나는 것, 자주 만나게 하는 것, 그 이상의 통일 방안이 있을까를 생각해봅니다.

그 열기와 그 곳에서 치솟았던 희망을 생각하면 지금 한반도를 감싸고 있는 암운이 결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을 촉구한다

권오현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하였다.」

6·15남북공동선언 가운데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천명한 세번째 항목이다.

이처럼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합의한 6·15남북공동선언 2돌이 지나고, 전쟁포로의 국제법상 권리와 부당한 강제전향을 무효선언하며 33명이 2001년 2월 6일 2차 송환을 요구하고 나선 지 1년 반이 다가오고 있지만 이분들을 그리운 고향과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돌아가게 할 어떠한 조짐도 보이고 있지 않아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6·15공동선언이 어떠한 이유로도 미루어져서는 안 될 7천만 민족 앞에 내놓은 약속이듯이 비전향장기수 송환 또한 공동선언 이행의 구체적 실천이면서 인간의 기본권 실현이고 인도적 사업이며 무엇보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첫 걸음이라는 데에서 시급히 실천할 민족적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면 1차 송환의 과정을 짧게 짚어보고 오늘 현재 추진하고 있는 2차 송환문제를 밝혀보기로 한다.

1989년 3월 19일 장기구금양심수의 석방과 후원을 목표로 창립된 민가협양심수후원회는 이들을 처음으로 '양심수'로 규정하고 단체로서는 아무도 업무를 내지 못했던, 높은 담장을 넘고 녹슨 빗장을 열어 면회를 하고 영치금품과 편지를 보내고 자매결연을 맺으며 세상의 빛, 사람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보낼 수 있었다. 그리하여 후원회 발족 당시 260여명이었던 장기구금 양심수를 1999년 12월 31일까지 모두 구출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장기구금양심수 문제는 석방과 후원, 출소 후 머물 곳과 생계 지원 문제만이 아니었다. 1989년 사회안전법이 폐기되면서 풀려난 인민군 중군기자 이인모 노인이 새로운 문제 제기를 했었다. 바로 전쟁포로의 국제법상 권리를 주장하며 원적지(이북 고향)로의 송환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1992년 양심수후원회 제4차 총회에서는 '인민군 중군기자 이인모 노인 송환운동'을 특별사업으로 채택하고 기독교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천주교, 불교 등 인권·

종교 단체들과 '이인모 노인 송환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결성 1993년 3월 17일 마침내 송환을 이루어 내기도 했다. 이때 송환운동을 하면서 '비전향장기수'에 대한 잠정적 정의도 내려진 바 있었다. 바로 '조국통일의 염원을 안고 수십 년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양심을 지켜온 사람들'이 그것이었다. 이러한 '비전향장기수' 송환운동은 그 뒤에도 이어졌다. 이인모 노인이 송환된 뒤 곧바로 본인들의 주장을 받아안아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 노인 송환추진본부'를 결성하여 전쟁포로 출신인 이들의 송환을 촉구하면서 고향과 가족이 이북에 있는 모든 비전향장기수 송환도 주장했었다. 그리고 1997년 2월 25일과 12월 31일 마지막 남았던 비전향장기수 21명이 모두 출소했다. 이보다 앞서 25여 인권·종교·사회 단체로 구성된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송환운동을 하여 마침내 2001년 9월 2일 63명의 비전향장기수 송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비전향장기수 1차 송환이 이루어지기까지에는 아무래도 위에서 말했듯이 6·15남북공동선언을 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동선언에 독립된 항목으로 자리잡기까지엔 또 다른 노력들이 있었다. 바로 송환된 당사자 자신들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열악한 감옥 조건, 잔혹한 고문 등 강제 전향공작의 엄혹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켜왔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발맞추어 양심수후원회를 비롯한 인권·종교·사회 단체들의 송환운동 또한 낮게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통일부장관 면담, 조건없는 송환을 촉구하는 토론회, 거리캠페인, 서명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사회 각계로부터 폭넓은 지지와 성원을 받을 수 있었다. '상호주의'나 '조건부송환'이니 하는 일부 부정적 주장들에도 설득과 이해를 시켜야 했었다. 강연회, 기고문, 기자회견, 방송출연 인터뷰 등 수없이 사회여론화 사업에 게으르지 않았다. 그리하여 63명의 1차 송환은 비록 정순택, 정순덕 두 분이 부당하게 빠지기는 했지만 6·15공동선언 이행의 첫 사업

으로 남과 북, 해외 우리 민족은 물론 온 세계의 모든 송환을 염원했던 사람들의 기쁨이었고 양심과 인권과 인도주의 정신의 승리이기도 했다.

어떤 사람들은 9월 2일 1차 송환으로 비전향장기수 문제가 끝나지 않았느냐고 묻고 있다. 물론 1차 송환 희망자들은 위에서 말했듯이 정순택, 정순덕 노인을 빼고는 모두 송환되었기에 두 분만이 남아 있을 뿐이라고 오해할 소지도 있었다. 그러나 비전향장기수 문제는 한 번 송환만으로 끝낼 수 없는 송환 대상자의 유형별 차이와 남북 사회가 안고 있는 정치·사회적 조건, 당사자 개개인의 실존적 삶의 조건(가정 문제 등) 등이 겹쳐 작용되고 있었다. 그래서 1차 송환은 그 첫 걸음일 뿐 송환대상이 있는 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반세기가 넘게 웅어려진 한을 푸는 작업이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송환운동이 1차 때만큼 쉽지 않다는 것도 인정한다. 1차 때는 상당수가 최근에 출소했거나 비전향장기수의 상징적(장기 구금 등) 인물들이 많았고 6·15공동선언에 따른 남북 사이의 화해·협력 사업이 큰 부담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사회 여론도 매우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엔 상황이 매우 다르다. 무엇보다 남북 사이의 당국자 대화가 끊기고 있는 경직 국면이고, 바로 그 배경으로 미국의 조국반도에서의 전쟁 책동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차 송환으로 비전향장기수 송환 문제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왜 1차 송환 때 신청을 하지 않았느냐고 묻기도 한다. 있을 수 있는 의문이다.

그러나 2차 송환 희망자(신청자)들은 위에서 말했듯이 조건과 처지가 달랐다. 줄여서 말한다면 비전향장기수 가운데 가족 문제 때문에 판단(신청)을 유보했거나 비전향 출소를 했지만 오랜 권위주의 체제 아래 탄압과 감시가 철저했기에 거의 잠행하다시피 하는 폐쇄적 생활 조건으로 송환과 관련된 정보나 통보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으며, 또 다른 유형으로는 1차 송환 신청을 했었지만 비전향자가 아니라고 제외되었던 정순택, 정순덕 노인처럼, 잔혹한 고문 등 강제 전향공작 과정에서 본인 의지에 반하여 강제로 각서에 지문을 찍은 사람들이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이렇게 강제로 전향 당한 사람들을 우리는 결코 '전향장기수'라 하지 않는다. 사상전향을 강제했던 사회안전법 자체가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성 때문에 폐기되었

으며 사상전향제도 역시 같은 이유로 또는 국제인권협약 등에 위배되기 때문에 정부 스스로 없애버렸듯이 부당한 법과 제도·정책 관행 등으로 그리고 잔혹한 고문 등 강제 전향공작으로 본인 의사에 반하여, 인간이 건드릴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모인을 찍는(혹은 찍히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임으로 이들 모두를 '비전향장기수'라고 다시 규정하게 되었다. 때문에 우리는 구태여 전향?비전향의 구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비전향장기수 송환 원칙을 세우고 있었고, 지난해 8월 3당 정당(김원웅, 이종걸, 천영세) 언론인, 통일 연구자, 교수 등이 함께 한 토론회에서도 재확인한 바 있었다. 그러나 그 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던 전향공작에서 끝가지 의지를 굽히지 않은 신념의 강자로서의 비전향장기수의 존엄과 품위를 조금이라도 손상시키는 문제와는 전혀 다르다. 물론 자의로 전향을 하여 동지를 배신하고 권력에 굴복, 동원되어 그 노리개 노릇을 했거나, 적어도 그들이 지향하는 사회체제를 선택하여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권력에 굴복 또는 자청하여 반동적 행위를 하지 않고 단지 이념적 지향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들에겐 비난하거나 폄하하지 않아야 함도 분명하다. 다시 정리하면 여기서 말하는(송환과 관련) 비전향장기수는 어떠한 조건에서도 전향을 거부했거나 위에서 말했듯이 본인 의지에 반하여 강제 전향당한 사람으로 현재에도 자신들이 지향한 조국통일 염원과 정치적 신념을 지켜오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2차 송환 희망자들도 1차 때처럼 송환을 주장하는 유형이 두 가지이다. 먼저 전쟁 포로의 국제법상 권리로서 원칙적 송환을 요구하는 전쟁포로 출신들의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보안법 등 반인권·반민주·반통일 악법으로 장기 구금되었다가 풀려난 비전향장기수들의 구속되기 전 소속 지역 거주지 송환이다. 그러나 이들은 다같이 ①부당하게 장기 구금되었다는 점 ②잔혹한 고문 등 강제 전향공작에서도 자신의 통일염원과 정치적 신념을 바꾸지 않고 오늘까지 지켜오고 있다는 점 ③오랜 옥고에서 풀려나 형식상 자유인이 되었지만 보안관찰법에 의해서 그 외 방법으로 감시와 규제를 받아 오고 있다는 점 ④고향과 가족이 그리고 구속되기 전 거주지가 북쪽이거나 이념적 고향을 북쪽에 두고 있다는 점 ⑤자유 의사로 귀향의지를 갖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6·15남북공동선언에서 비전향장기수 문제 해결의 길

을 터놓았고 우여곡절은 있지만 남북 사이엔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사업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마땅히 주장되어야 할 전쟁포로의 국제법상 권리라든가 거주지 선택의 자유라는 인권 문제가 앞서야 뭉에도 불구하고 6·15공동선언에서 천명한 대로 인도주의와 동포애 정신으로 그리고 분단상처의 응어리를 풀고 외세 간섭 없이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우리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뜻에서 어떠한 조건 없이 송환되어야 할 것이다.

2001년 2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송환을 주장했던 33명은 대부분이 전쟁 시기 또는 60년대에 구속되었기에 모두 나이가 많고 오랜 옥고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다. 80~87살이 8명, 70~79살까지가 21명, 60~69살까지가 3명, 60세 미만이 1명으로 대부분이 70살 이상 고령이고 고문과 장기구금에 따른 후유증, 청력장애, 허리와 무릎 등 퇴행성관절염, 지방간, 간장질환, 당뇨, 노인성고혈압, 노인성허약, 위장질환 그리고 뇌혈전, 뇌출혈 등으로 반신불수 등을 앓는 등 두세 가지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오랜 옥고를 치르고 나온 장기 구금 양심수(송환 신청자는 아니었지만)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이들의 체포되기 전 주소지를 보면 이북이 26명이고 이남이 7명으로 대부분 이북 출신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쟁에 참전했던 전쟁포로 출신이 13명이고 정치공작원이 12명, 안내인이 7명, 기타 1명으로 되어 있다. 복역 기간을 보면 30~35년이 5명, 20~29년이 17명, 20년 이하가 11명으로 2/3가 20년 이상이다. 이들은 남북으로 흩어져, 또 다른 아픔을 안고 살고 있는 일반 이산가족들과는 분명히 다른 국가권력의 부당한 권력에 의해 강제된 이산가족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6·15공동선언에서 천명된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어떠한 이유로도 미루어서는 안 된다. 때문에 비전향장기수가 송환 희망을 밝힌 이상 반드시 송환해야 한다. 따라서 9월 2일 1차 송환의 연장선에서 당시 가족 문제 등으로 유보했었거나 송환 사실 자체를 몰라 신청을 하지 못했던 비전향장기수를 즉각 송환하여야 한다.

2. 1차 송환에서 제외된 정순택, 정순덕 노인을 비롯하여 본인 의사에 반하여 잔혹한 고문 등으로 강제 전향당한 사람들 가운데 송환 희망을 밝힌 모든 사람들 또한

마땅히 비전향장기수로서 송환해야 한다. 특히 이 분들에게 계속하여 과거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복역했던 것을 빌미로 반민주·반인권 악법이며 위헌성을 갖고 있는 보안관찰법을 적용시켜 감시와 규제 통제 행위를 하고 있다. 예로써 낙성대 '만남의 집'에 살고 있는 김영식 노인의 경우 이북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유사시 재북 가족과 접선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안관찰을 해야 한다는 공안당국의 임의 판단을 보내 오고 있었다. 도대체 전향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 하여 송환이 안 된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에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처럼 보안관찰을 비롯한 부당한 행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상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만남의 집' 같은 곳에서 양심수 후원회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분들도 이처럼 부당한 처분을 당하고 있는데, 외파로 생활하는 다른 분들은 과연 얼마나 심한 부당 행위를 당하고 있을지 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비국민으로 대우받는) 이 분들은 고향과 가족이 있는 곳, 본인이 희망하고 지향하는 곳으로 송환되어야 할 것이다.

3. 1차 송환에서 당시 93세된 노모를 모시고 가지 못했거나 결혼을 하여 호적에 올려 있던 부인조차 함께 가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 비전향장기수의 1차적 의미는 그들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지향해 왔던 세계로 돌아가는 문제였다. 노모님을 모시고 가거나 부부가 함께 가야함은 1차적 의미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인도주의의 문제이며 인류에 관한 문제이다. 이들의 재결합 문제는 바로 비전향장기수 송환의 연장 문제이다.

끝으로 오늘 남·북 사이의 당국자 대화가 끊기고 있는 터에 비전향장기수 송환은 대화 재개뿐만 아니라 6·15공동선언 이해의 본보기로서 또 다른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지고 보면 송환 문제가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전쟁 책동 등 부당한 패권주의 만행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때일수록 미국의 부당 행위를 전민족적 차원에서 규탄하며,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민족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을 위해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로써 빠른 시일 내에 송환이 이루어질 다시 한번 촉구한다. 

오늘 돌이켜보면

김호 '후원회 소식' 편집위원

최루탄과 더불어 지나온 청춘

내 청춘은 학생운동으로 시작됐다! 봄날의 따사로움과 캠퍼스의 낭만을 즐겨보려는 커녕 시작부터가 최루탄과 돌이었다. 시간이 차츰 지나면서 나의 전투성이 높아지자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내 손에는 쇠파이프가 주어졌었다. 지금 생각해도 넘 웃기는 일이다. 내 키만한 쇠파이프를 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주변의 선배들이 놀라운 표정을 지으며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저 “아!” 소리를 내뱉으며 걱정의 눈길로 나를 주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긴 지금도 동인인 편인 필자가 19살에 쇠파이프를 들었으니 말이다. 그래도 어린놈이 당차다고, 싸움 잘 한다고 이내 소문이 퍼져서 투쟁이 있긴만 하면 선배들이 전부 나를 찾았다.

“호 어디 갔냐?” 그러면 나는 약간은 거만한 표정으로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 앞에 싸움이 벌어진 것 같다! 빨리 네가 나가봐라!”

이내 난 작은 어깨에 힘 팍 주고 화염병을 멋지게 날리며 거리로 나갔다! “전노일당 처단하고, 학원자주 이룩하자! 이룩하자~ 이룩하자~”...

그런 생활의 연속 속에 투쟁의 현장에서 경대를 보내고 소위 문민을 가장해 흑세무민하는 김영삼과 조우하게 됐다. 당시 우리 선봉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들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도 영삼이에 대한 해심을 간파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아, 왜 김영삼이 왜 사대매국노라고 생각하니!”

당시 선봉대 대장이 투쟁이 끝나고 술을 먹거나 훈련 중에 이런 질문을 하곤 했을 때 우리는 주저 없이 이렇게 답을 했었다. “생긴 것부터가 재수 없어요 나라 팔아먹을 놈이예요!” “정답!”

시대의 꼴통 영삼이와의 조우

아! 그런데, 이 꼴통이 내 인생을 이렇게 즐겁게 꼬이게 할줄이야.

96년 연대항쟁이 일어난 것이었다. 정말 꼴통도 이런 꼴통이 없었다. 연대 안에서 우리들끼리 화자됐던 말에 의하면 영삼이 이 놈이 한총련에게 무지무지한 악감정이 있다

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 꼴통이 어디로 튈지 몰라 바짝 긴장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세계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었다!

헬기에서 내린 로프를 한다리로 감고 거꾸로 매달린 대테러 특수부대가 옥상에 있는 선봉대에게 돌맹이를 던지면서 진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영화에서나 볼듯한 그 멋진 헬기에 그 멋진 제복에 그 멋진 포즈를 잡고 기껏 돌맹이나 던지다니... 아! 위대한 대한민국 백골단이야! 용맹한 우리의 백골단이 세계 대테러 진압역사의 한 획을 긋는구나!

장난으로 던진 돌에 맞아 개구리 죽는다고 비록 총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사태는 심각하게 다가왔다. 여기저기서 항복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급기야 속옷을 벗어 쇠파이프에 매달아 백기를 드는 사람들이 속출한 것이었다. 본능적으로 전쟁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었다. 이후 굴비 엮이듯 줄줄이 엮여서 수천명이 구속됐는데 건국이래 대한민국 역사상 단일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수였다. 그중에 내가 키워온 후배들이 십 수명이 넘었으니 영장을 받아 군대를 가야할 내 심정이 어땠으랴? 살 떨리는 고민을 뒤로한 채 심호흡 한번하고 부모님께 편지 한 장 쓰고 곧장 군도바리를 쳤다.

여대생의 투쟁일지?

당시를 되돌아보면서 인터넷신문검색사이트인 kinds에서 한총련을 검색해 봤다.

새소리 사라진 아름다운 캠퍼스/ 연대 폐허로 돌아일보 1996-08-17
“한총련 외해” 선언/대검공안부장 회견 -조선일보 1996-08-18
농성건물 이틀째 봉쇄/ 음식물 등 반입 차단/한총련시위 -동아일보 1996-08-19
‘화염병·쇠파이프’ 폭력시위/필요하면 총기 사용 -조선일보 1996-08-20
‘총기사용’ 담화에 학부모들 긴장/한총련시위 8일째 표정 -동아일보 1996-08-20
‘폭력시위 총기사용 불사’ /한총련 ‘끝까지 투쟁’ 선언-한겨레 1996-08-20
YS ‘문민시대 저항이 웬말’ 초강경 -한겨레 1996-08-21
여대생의 ‘투쟁일기’(사설) -조선일보 1996-08-22
김대중·김종필 두 아당 총재에 안기부서 안보 설명회 -중앙일보 1996-08-22
쇠파이프 만져보며 침통한 표정/김 대통령 경찰병원·연대방문 -동아일보 1996-08-23
폭력시위 학생 채용 제한 -조선일보 1996-08-30
마케도니아 공산당 ‘한국 테러 의도 없다’ -한겨레 1996-08-30

여대생의 투쟁일지라! 무슨 ‘썬데이 서울’ 수기를 썼나 보다. 재미있는 것은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는 영삼이다.

식민지 통치자들 그리고 사대매국노들의 전형적인 통치수법이 강한놈에게는 야비할 정도로 굽신대는 유화정책을 쓰고 약한놈은 철저히 깨부서서 주변의 본보기로 삼는다는 것인데, 여기저기서 쥐어터지더니 지판에 만만한 한총련을 때려부수고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한 전형적인 사대매국노 김영삼이 진압된 인문관 옥상에서 천하를 내려보며 감회에 젖었으니 얼마나 득의양양했겠는가? 지금은 동네 골목 양아치로 전락한 김영삼을 떠올리니 살 떨렸던 기억은 가고 웃음만이 나올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언론권력에 의한 테러가 나에게 곧장 할 줄이야!

주체의 길을 가는 남자 주길남?

97년 서총련 투쟁국장장을 검색해 보았다.

지도부 개입가능성 높아/ 이석씨 처사 수사 -한국일보 1997-06-07
이석씨 상해치사 사건/서총련 투쟁국서 주도/ 경찰5명 가담 확인 -조선일보 1997-06-09
주체의 길을 가는 남자 '주길남' /한총련 간부들이 쓰는 가명들 -한국일보 1997-06-10
서총련 투쟁국장 이 첫 폭행/ 시민치사 현장검증 -한국일보 1997-06-12
서총련 투쟁국장 김호/ 고강경대군 대학 친구 -한국일보 1997-06-15

지도부 개입가능성이 높다더니 급기야 내가 첫 폭행을 하고 이후 지도를 했다는 것이다. 언론의 소설이 어제오늘의 일이라. 백미는 내 가명에 대한 기사인데 주체의 길을 가는 남자라서 '주길남' 이라는 것이다. 즉 주사파라는 것인데, 아뵘싸 허나 어찌랴! 술 먹고 주정 좀 부렸다고 저런 주길놈이 있나 하면서 동지들이 애칭으로 '놈' 을 '남' 으로 바꿔서 붙여준 이름인데 말이다(전적인 fact임). 어쨌든 주사파가 맞기는 맞으니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아 팩트에 철저한 민주주의의 수호자! 대한민국 자유언론이여!

여튼 난 이석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판결문에도 없는 폭행을 한 놈이 되고 말았다. 게다가 MBC, SBS 기자 놈들은 취재를 빙자해 아무도 없는 우리 집 담을 뛰어 넘어가 집안을 수색하고 가족사진을 훔쳐 이를 보도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지금 해당 기자들을 실정법상 도둑놈으로 경찰에 고소해서 현재 조사진행중인데 워낙에 권력 있는 놈들이라 어찌 될지는 모르겠다.

이후 나는 전국에 수배가 떨어졌다. 길거리에 나붙은 포스터의 내 사진이 내 얼굴을 한없이 땅으로 처박게 했다. 신문기사와 방송에서 수배사실을 알리는 앵커의 목소리가 나와 세상을 철저히 단절시키고 고립시켰다.

갈 곳이 없어 거리를 전전하는 비행기비는 커녕 버스비도 없는 필자의 귀에 아주 말끔하고 부드러운 앵커의 소리가 들려왔다.

“서총련 투쟁국장인 김호에 대해서 전국 공항에 출국금지령을 요청하는 한편 연고지에 형사를 급파해.....”

호야 준법서약서 쓰지 말아라!

용빼는 재주 있으랴! 결국 나는 구속이 됐고 이후 1997년 8월부터 2000년 8월까지 3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 구속이 되고 나서 제일 좋아한 사람은? 바로 우리 엄마! 어디서 뭐 하면서 지내는지 모르고 마음 졸였던 자식놈을 감옥에서나마 생사를 확인할 수 있게 됐으니 말이다. 감옥 안에서 검사가 준법서약서 어찌구 저찌구 한적이 있었다. 물론 쓸 생각도 없었고 그런 검사에게 씨발개발하며 고무신 꺾어 쫓아냈었지만 우리 엄마가 면회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호야 그냥 안에 있어라! 서약서 쓰고 나와서 또 테모하지 말구!”

지금도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되돌아보지만 필자에게 뿐 아니라 수많은 청년학생들과 그 부모들에게 정권과 언론이 저지른 상식이하의 만행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 또한 이러한 만행은 소위 노벨상을 받았다는 김대중 정권 하에서도 여전히 현재진행(ing)중에 있다.

나의 직장 언론인권센터에서

이렇듯 살아온 삶이 순탄치 않았는데 일터가 순탄했겠는가? 사회의 모순이 울분과 열정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듯이 내 인생이 겪은 수난 또한 울분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인간사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법! 마음 먹은 대로 경험한다지 않던가? 조그만한 월간지에서 편집기사를 하다가 3개월만에 때려치고 우연찮게 언론피해를 구제해주는 시민단체와 상담한 것을 계기로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에 몸을 담은지 벌써 9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언론의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주는 시민단체이다! 주변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다면 presswatch.or.kr로 상담해주시기를 바란다.

“안녕하세요! 언론인권센터입니다” 하는 상냥한 목소리가 들린다면 필자일 것이다.

하지만 필자의 팔자가 한 곳에 오래 머무르는 스타일이 아닌가 보다. “열심히 일한자! 떠나라!” 하는 소리가 밤이나 낮이나 반복해 들려오더니 이내 열심히 일하지도 않은 필자를 부추긴다. 곧 떠나야 할 때가 됐나보다. 그런데 걱정이 하나 있다. 카드가 없다는 것이다. 하나 무슨 걱정이랴? 빈몸으로 왔다가 이름 한자(ho) 남기고 빈몸으로 가는 것이 인생인 것을...

01 ✨ 영등포역광장에서 반미·반전·반핵, 범민련·한총련 선별배제 철회, F-15K 대통령 재가 규탄, 6.15 공동선언 이행과 민족대축전 성사를 위한 제1차 국민대회 - 통일연대 주최로 열림. 이종린의장 대회사와 권오현의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와 10기 한총련 김형주의장 구속규탄발언, 범민련 명동농성단장 이태영의 6·15통일대축전 선별배제 규탄발언. 전상봉 한청의장의 결의문 낭독 등이 있었음.

✨ 같은 장소에서 민중연대 주최로 '월드컵을 빙자한 부정비리논쟁, 민중운동단합, 김대중정권 심판, 민중생존권쟁취 결의대회' 열림

✨ 답골공원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 양심수석방, 정치수배해제, 한총련 이적규정철회를 위한 토요캠페인 열림. 오늘은 양심수후원회 책임주관으로 서명운동, 거리선전전 등을 벌임. 변의숙, 김숙희, 박지윤, 송창학, 이정태, 오영순, 이진, 이창희, 고광희, 노혁, 권오현등 함께 함.

✨ 종로5가 기독교100주년 기념관에서 '뜻봄 문익환목사' 8주기기념 "평양가는 기차표를다오" 공연 1부에서는 제7회 통일상시상식(수상자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회장 신장근 선생님)이 있었고, 2부에서는 우리나라, 임수경, 원창연, 노래모임 이준마, 안치환, MITSUE MAMIYA 등 노래공연.

02 ✨ 양심수후원회 역사강좌 6강 '서울을 돌아보며 현대사의 흔적을 찾아보며 가 현장답사 형식으로 진행되었음. 이른 아침 9시30분 운니동 덕성여대 교정에 모여 한상권, 이호룡교수님의 오늘 답사 코스와 배경설명을 듣고 참가한 사람 소개시간을 가짐. 운니동교정. 휘문고 교터 - 경우교터 - 계동교터 - 제생원터 - 관상감관천대 답사 - 한규설 한학수집터를 돌아보며 가는 곳마다 두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이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건준위)터 답사, 몽양 여운형 선생집터에서 여운형에 대한 연구발표(김민정회원) 시간을 갖고 한상권 교수님의 보충강의도 있었음 - 다음엔 송진우집터에서 이창희간사 연구발표, 중앙고등학교(기호문학회), 인촌집터등에서는 이진회원 연구발표가 있었음. 오전답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다음 재동초등학교 - 광혜원터 - 박규수·홍영식 집터(헌법재판소안) 일본공사관터 천도교 중앙교회당 - 건국대터(서북학회)를 거쳐 덕성여대 교정으로다시 모였음. 오늘 답사와 강의, 연구발표 전과정에 대한 평가시간을 갖고, 잔디밭에 둘러앉아 맛있는 뒷풀이 시간을 가졌음. 양계숙, 변의숙, 노혁, 김현애, 김민정, 김희정, 김숙희, 이정태, 김재현, 임미영, 이정숙, 김수룡, 김영식, 이혜경, 안학섭, 문상봉, 이일규, 이득형, 권오현, 이진, 박지윤, 조순덕, 고혜경, 모지희, 한명남, 반유림, 송창

학, 송미경, 이창희, 한수정, 이현주(덕성여대) 조을 한, 김연숙, 김재환, 이용준, 한상권, 이호령 함께.

03 ✨ 서총련 학생들 한나라당사 방문, 이회창후보의 관훈클럽 초청 6·15공동선언 2항 관련 발언과 관련 강력히 항의하고 항의서한 전달

04 ✨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범사회인대책위, 한총련학부 모협의회, 한총련 공동주최로 '한총련 이적규정철회와 10기 한총련 의장 무죄석방 기자회견'을 열다. 한총련 조동위원장 사회로 기자회견문 낭독(권오현), 향후활동계획 (조동위원장)등이 있었음.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한총련 수배학생 박무웅(한양대 2001 총학생회장) 어머니, 박재인(경기대-12기서총련의장)어머님들도 함께 했고 -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 한총련 학생과 어머니들 수배해제조치·이적규정문제 등 간담회를 갖고 함께 식사하며 위로(이창희, 권오현)

✨ 향린교회에서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화를 위한 통일연대대표자회의 열다. - 보고안건 거쳐 논의안건으로 신규단체가입승인(우리문화 동질성연구회, 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 이어 6·15민족대축전 행사 기획안승인, 예산안승인, 대표단 파견배정문제, 추진본부구성 등 논의

✨ 오후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7-8시까지 6·15민족통일대축전 선별배제 규탄, 캠페인 벌임

✨ 민혁명 사건과 관련하여 홍제동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이석기씨 항의방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정태운영위원 함께 함.

05 ✨ 6.15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할 양심수후원회 대표로 송경용 운영위원 결정(운영위원들과 전화회의)하고 비전향장기수 송환 추진위원회 대표로는 이정태 운영위원(송환추진위 집행위원) 결정

✨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범민련·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6·15 민족통일대축전 성사, 명동성당농성단 문화제 열림 - 마치고 촛불행진

06 ✨ 통일연대 명동성당 농성 - 오늘 양심수후원회 책임으로 진행. 거리선전, 캠페인 등 벌임. 특히 단국대 범사회학회 학생 20여명이 지원나와 함께 하였음 - 송창학, 이진, 한수정, 박지윤, 김호, 이창희, 고광희, 김민정, 이정태, 장재영, 송경용, 이승미

✨ 단국대 대동제 기간에 범사회학회 모임이 양심수를 위한 장터를 벌여 순익금 1,322,000원을 내어 몽땅 양심수후원회로 가져왔습니다. 양심수후원회에서는 감사히 잘 받아, 이 가운데 단국대생 정치수배로 쫓기고 있는 5명에게 500,000원을 돌려주고 남은 돈은 영치금으로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단국대 범사회학회는 양심수 후원회와 10년이 넘게 연대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시그네 티스 노조원 임영숙 부위원장님이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입후보한 상태에서 구속되어 옥중 선거 운동을 하게 되다. 임부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한강 대교 위에서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고공시위를 하고 내려와 경찰에 연행돼 구속되었음. 임영숙님의 승리를 빕니다.
- ✎ 지난해 7월16일 미군기지에서 설치한 고압선에 감전돼 팔, 다리를 절단하면서 투병해오던 건설노동자 전동록씨가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미군부대안 양수기 가동을 위해 설치했던 고압선으로 주민들로부터 안전사고 위험을 말해왔었으나 미군측은 이를 묵살, 이같은 참사를 내었습니다. 삼가명복을 빕니다.
- 07 ✎ 이한열 열사 15주기 추모제가 연세대 민주광장에서 유가족, 민가협 등 사회단체 성원과 연세대학생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이한열 열사 추모준비위 주관으로 열림
- ✎ 故 전동록씨 장례위원회 긴급대책회의를 일산 빈소에서 열고, 대학별로 분향소를 설치하고 8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주한미군 규탄 집회를 열며 장례는 10일 민족자주장으로 치르기로 함.
- ✎ 민혁명 사건과 관련하여 이석기씨가 홍제동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민혁명대책위 항의방문 진행. 이정태 운영위원회 함께 함.
- ✎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임동규선생님을 이정태 운영위원회가 면회함.
- 08 ✎ 용산전쟁기념관 앞에서 미군기지 고압선 피해자 전동록씨 공동대책위원회 주관으로 '건설노동자 전동록씨 죽인 주한미군 옹정규탄대회'를 열다. 대회를 마치고 주한미군사령부에 항의서를 전달하고 면담요청.
- ✎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는 사직공원에서 '6·15 민족통일대축전 성사를 위한 2차 국민대회'를 열고 서대문 독립공원까지 거리행진
- ✎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제13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가 범국민추모제준비위원회 주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주관으로 열림. 한충목집행위원장 사회로 대회사(오종렬), 추모사(조순덕(민가협), 백순환(민주노총), 오충일(6월항쟁), 한상범(의문사진상규명위)와 헌시(진관스님), 결의문 낭독(남상헌), 유족인사(조찬배)가 있는 다음 참가자의 순화순서가 있었음. 이어 정보선(인천연합 문예위원장)사회로 추모문화제 열림. 양심수후원회에서 김현희, 이득행, 양계숙, 변의숙, 이창희, 박지윤, 송창학, 권오현 함께 함.
- ✎ 이른바 민혁명사건으로 경찰청 보안수사대에 부당하게 강제연행되어 조사받고 있는 이석기씨를 서대문경찰서에 가서 면회함. 이득행, 양계숙, 김현희,

- 변의숙, 권오현 다녀옴.
- ✎ 제90회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175개국 노동자대표 500여명은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의 노조간부 구속등 노동권 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
- ✎ 인천 나사렛 한방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이신 정순덕 선생님을 뵈오로시 회원들이 문병 다녀왔습니다. 오랜 병원 생활로 많이 지치신 선생님께 회원들이 많이들 찾아뵈었으면 좋겠습니다.
- 09 ✎ 상암동 월드컵공원에서 6월항쟁 15돌기념 제6회 시민달리기대회가 열렸음. 이 '행진 6·10'에 양심수후원회도 단체로 신청하여 참가함. 양심수후원회와 한총련 대책위는 "행진6·10"이 진행되는 곳에 서명대를 설치하고 한총련이적규정철회 서명을 받고 각종 선전피켓과 플랭카드를 걸어 대회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서명을 받았음. 양심수후원회는 후원회 깃발을 들고 45여명이,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민혁명관련 하영옥(8년연도)씨 사진을 가운데에 넣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Free all prisoners of conscience"를 등글게 써놓은 특별제작한 티셔츠를 입고 5.8km구간을 완주했음. 문상봉, 김영식, 안학섭, 김영승, 박정평, 이창희, 고광희, 김호, 박정범, 노혁, 최성욱, 오수강, 김민정, 김숙희, 이일규, 김광태, 김소중, 이용준, 송창학, 최범림, 한수정, 오영순, 양계숙, 변의숙, 김현희, 한경남, 이진, 한찬욱, 이득행, 박지윤, 황혜로, 권오현 등 함께 함.
- ✎ 상암동 월드컵공원 한쪽에 몰래 가공식을 했던 박정희기념관 공사현장에서 박정희기념관반대국민연대 주최로 '박정희 기념관 도둑기공식 규탄집회'를 열음. '행진6·10'에 함께 한 양심수후원회들 집회에 함께 참여.
- ✎ 민혁명 사건으로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최진수씨를 이정태 운영위원회가 면회함
- 10 ✎ 이정태 운영위원회와 민족21 손흥규 객원기자가 오전에 임동규선생님 면회한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임동규 선생님의 보석이 결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음.
- ✎ 2001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고 돌아와 부당하게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항소심) 범민련 광주 전남의장 임동규씨가 보석으로 풀려남. 늦은 7시경 범민련, 전국연합,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한청, 양심수후원회, 통일광장, 통일연대, 전농등 많은 단체 성원들이 마중했고 구치소가 가까운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며 환영식을 가졌음. 환영사(이종린, 오종렬, 임방규, 한상열, 권오현)
- ✎ 한국성공회성당 마당에서 6월항쟁 계승 반전평화위원회 주최로 6월항쟁 15주년 기념식을 갖고 6월항

생 15주년에 즈음한 2002인 선언 을 발표하다.

- 22900볼트 미군기지 고압선에 감전돼 11개월을 투병하다 숨진故 전동록씨 장례식이 고양시 일산병원에서 영결식을 치른 뒤 서울 광화문 대대사관 앞 노제를 치내려 했으나 경찰의 부당한 방해로 무산됐다.故 전동록선생 민족자주사회장으로 치른 장례위원회는 경찰의 부당한 방해책동과 폭행등에 사과를 요구하고 주한미군에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며 파주시 조치를 너조리 미군부대 "캠프하우스" 앞에서 노제를 지낸 다음 고양 용마리 서울시립묘지에 안장함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1 새대문경철사 앞에서 민혁당대책위와 국가보안법 폐지국민연대 공동으로 이석기씨 부당연행 조사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민혁당사건 조작확대수사 중단을 촉구-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플랭카드 등이 있다는 이유로 경찰이 부당하게 방해하여 회견장에 나온 민주노동당원등 4명을 불법연행했으며 이석기씨 어머니가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는 처참한 일이 있었음.

- 범민련, 한총련 6·15민족통일대축전 선별배제항의 명동성당농성단 격려방문
- 민주노동의 택시·병원노조등 11일 현재 63개 사업장에서 2만2천여명이 파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중요공원에서 민주노동소속 조합원 집회를 열고 입단협 성실교섭, 구속수배노동자 석방, 장기파업사업장 해결등을 촉구하고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

12 과천 정부종합청사앞(법무부)에서 범청학련 황신, 김혜신학생등 구속과 관련 범청학련 구속자대책위 주최로 파켓시위를 하고 양심수석방을 촉구하는 항의서한과 법무부장관면담요청서 접수시킴(권오창, 권오현외)

- 한총련소속 대학생 4명이 오후1시경 한나라당사 4층 기조국실을 기습점거하고 유리창밖으로 플랭카드를 내걸고 있는 과정에서 경찰에 강제연행당함. 연행된 4명은 영등포서에서 조사를 받고 곧바로 보안수사대등으로 이송되었음. 박진영(한양대-성동서), 홍서정(덕성여대-옥인동분실), 양혜정(광운대-장안동분실), 김현배(경기대-장안동분실) - 민가협 어머니들이 소식을 듣자마자 영등포경찰서로 달려가 면회를 하고 즉각석방을 촉구했음
- 중로 정부종합청사(통일부)뒤에서 통일연대 주최로 6.15민족통일대축전 범민련·한총련등 선별제외 규탄기자회견과 철회를 촉구하는 규탄집회 열다.
- 양심수후원회 제14차년도 제2차운영위원회 낙성대 '만남의집'에서 열림(음식점에 이어지면서) 후원회 활동보고, 재정보고와 6·15민족통일대축전참가문제, 재정확보문제, 민가협·양심수후원회의 단합과

발전문제, 이날은 특히 금강산 민족통일대축전에 양심수후원회와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 대표로 떠날 송경용 신부님과 이정태운영위원의 환송모임시간이기도 했음. 이기욱, 이정규, 김호현, 모성룡, 권오현, 이정태, 이창희, 나정옥(참관), 노혁(참관)이 함께 했음.

-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6·15남북공동선언 교수·이행, 6·15민족통일대축전성사와 범민련·한총련 조건없는 참가보장을 위해 노동농성에 들어갔던 통일연대 오늘 17일간 농성을 마치고 정리집회를 가짐
- 회원사업팀 모임이 인사동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회의보다는 회원간의 더 많이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변의숙, 노혁, 송창학, 양계숙, 정형근

13 통일연대와 민화협, 7개 종단으로 구성된 6·15민족통일대축전 남측준비위원회는 범민련·한총련등 선별제외(13명)에도 불구하고 북측분비위원회와 실무회의 합의대로 14~16일까지의 대축전 참가를 위해 이른 9시 17명이 서울을 떠나 속초로 향했음- 오후 속초항에서 금강산 장전항에 도착, 대축전 행사 준비 마침- 이른 아침 떠날 때 통일연대와 범민련은 따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범민련·한총련등 13명이 제외된데 강력항의- 양심수후원회를 대표하여 송경용 신부님(운영위원)이,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를 대표해서 이정태(운영위원)집행위원이 금강산 대축전에 떠남. 고광희, 이창희, 권오현 배웅함.

- 서울경찰청 옥안동 분실로 한나라당에 항의하다강제연행 조사받고 있는 홍서정씨 면회하다. 덕성여대 학생으로 떠났던 일 했다는 자గు심을 갖고 있고 이회장이 6·15남북공동선언을 파탄내려는데 대해 응징하려 했다 했음. 면회를 하고 나오는 길에서(경북구역) 부모님을 만나 위로말씀 드림. 고광희, 이창희, 권오현 함께 함.

한총련 대의원으로 3년째 정치수배를 받아온 김미연(경기대 서울캠퍼스 부총학생회장)학생이 '이적 규정철폐를 위한 한총련 대의원 수배자 6.13선거 공개투표'를 자택이 있는 노원구 하계동 연천초등학교에서 민가협 어머니들과 학우들 도움을 받으며 극적으로 성사시킴. 그러나 또다시 쫓기는 신분이 되고 있음. 개탄할 일이다.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실시, 오후 늦게까지 한나라당 압승

주한미군이 또 우리의 어린 여중생들을 육중한 케도차량으로 숨지게 했다. 이날 이른 10시 45분경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 56번 지방도로에서 이마에 시는 신호순(14. 조양중2년), 심미선(14. 조양중2년)학생 등 두 명이 미2사단 공병대 소속 부교

운반용 케도차량운전병 위커 마크 병장. 36)에 치어 그 자리에서 숨졌다.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SOFA협정 때문에 우리 경찰에서 조사를 못하고 미 헌병대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짐

✎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사무실에서 한국시그네틱스 노조원 60여명이 고용문제해결등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감

14 ✎ 민가협 운영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림. 활동보고와 재정보고가 있었고 8·15양심수석방대책, 민가협규약개정안등 논의

15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2돌 자주통일결의대회” 통일연대 주최로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림. 홍순석 한청부의장사회로 대회사 권오현, 정치발언 한총련 전승원 조동위원장, 결의문 낭독 이태영 인천·경기 범민련 의장등 - 결의대회가 끝난뒤 ‘땀을 흘려라’ 등 마당극 벌임

✎ ‘국가보안법폐지, 양심수석방, 정치수배해제, 한총련 이적규정 철폐를 위한 토요캠페인’이 종로 탑골공원앞에서 열림. 단국대 천안캠퍼스 차경애씨구속대책위(단대생 20여명), 민족고대 서창캠퍼스주훈, 이성우석방대책위 20여명, 감대원대책위(건국대생 10여명), 범청학련 황산, 김혜신석방대책위, 한총련 신승헌, 김정희의 대책위, 국보철국민연대, 한청, 범민련후원회, 양심수후원회등 70여명 함께 함 - 김현희, 정선화, 황철우, 이일규, 변의숙, 이창희, 송창학, 이진, 권오현 외 함께

✎ 후원회소식 128호 최종교정 - 이창희, 김호희원 애쓰
✎ 경희대 노천극장에서 통일연대 주최로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2돌기념 통일연대 대축전이 열렸음. 1부 여는 마당에서 서울풍물협회, 한총련 풍물패의 연합길놀이, 피아노2중주(임을 위한 행진곡, 조선은 하나다)에 이어 2부기념식 및 정치집회에서는 정대연씨 사회로 경희대 총학생회장인 김선근 환영인사, 영상축사, 참가단체 대표단소개 - 전 대오 깃발입장(양심수후원회-김재선회원 기수)을 한 다음 대회사(이종린), 기념사(오종렬), 정치연설(권영길), 우리나라 공언, 농성단 인사(이태영, 전승원), 정치연설(민주노총 조동위원장), 7천만 동포에 보내는 호소문(한기명), 결의문 낭독(전승원 한총련 조동위원장)등으로 마침. 3부 축전문화제(6.15남북공동선언발표 2주년 집체극 등), 4부 대동한마당 등으로 대축전 모두마침(16일 새벽) - 축전 참가 후원회원 송창학, 김재선, 이득형, 양계숙, 변의숙, 이승미, 이진, 박지윤, 이일규, 김민정, 김숙희, 정형근, 김호

✎ 6.15남북공동선언 2돌기념 6.15민족통일대축전이 14일 금강산 김정숙 휴양소 운동장에서 막을 올렸다. 대축전 남측참가단은 13일 오후 장전항에 도착.

첫밤을 보낸 뒤 14일 오전 남북해외(일본, 호주, 미국, 독일, 캐나다, 중국 등) 대표단 1000여명이 통일대축전 개막식을 연 다음 사진전을 돌아보았으며 오후에는 단오명절 통일축전 행사를 열어 사람찾아글자맞추기, 조국통일 공안고 달리기, 마음합쳐달리기, 발로 튀긴 공잡고 달리기, 6.15km 통일마라톤, 씨름대회, 줄다리기, 널뛰기, 그네뛰기등 9개 종목의 행사가 진행되었음 - 양심수후원회 이정태운영위원(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대표)이 6.15km마라톤에서 상위급 상을 받았음. 저녁에는 북측이 주최하는 금강산여관에서의 연회가 있었음. 15일 오전에는 1시간에 걸쳐 금강산여관에서 남북해외의 노동자단체, 농민단체, 민화협, 통일연대, 천도교단체, 기독교단체, 가톨릭단체, 여성단체, 청년학생단체, 시민운동단체, 언론단체, 학술단체, 문예인단체 등 13개 부문 계급별 회담이 열렸고 온정각에서 점심식사를 한 다음 금강산구룡연까지 등반대회를 가졌음. 2일간 대축전을 모두 마치고 폐막식을 갖고 다시 만날 것을 희망하며 아쉬운 만남시간을 마감함. 16일 오전 설봉호에 올라 12시 30분 속초항에 도착, 밤 9시 서울에 돌아왔음

✎ 종묘공원에서 통일연대 주최로 6.15남북공동선언 고수이행,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범국민대회 열림 - 전상봉 한청의장 사회로 대회사(문정현 신부님), 6.15민족통일대축전보고(김규철), 연대사(전동록대책위 이종우), 정치연설(김종일, 흥빈), 결의문 낭독(서상권), 희망새공언등이 있었음. 이어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까지 거리행진. 풍물패, 단일기, 여러가지 퍼포먼스 행렬 이어짐 - 정리집회는 청년학생 결의발언과 이종린의장 폐회선언으로 모두 마침. 송창학, 이일규, 이창희, 권오현 함께 함.

✎ 마로니에 공원에서 한총련 주최로 ‘10기 한총련 김형주의장 석방, 한총련 이적규정 철폐를 촉구하는 시민·학생 한마당’ 행사가 열렸음. 개회선언에 이어 격려말-오종렬(전국연합), 권오현(범사회인대책위), 종교인들의 역할(정진우목사), 법률대응(장병욱변호사)문제등 발표. 이어 한총련 의장구출 결의발언과 문화한마당 열렸음

17 ✎ 박정숙선생님 85회생신(16일)을 맞아 갈현동후원회 여러 회원이 박정숙·김선분 두 선생님을 수유역 근처 음식점에 모시고 나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선생님들이 만수무강하시길 빌었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통일조국의 그 영광된 날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찬욱, 김현희, 변의숙, 오영순, 이진, 이승미, 권오현등 함께

✎ 홍근수(자통협 상임의장, 양심수후원회 지도위원) 목사님이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미국의 탄도탄요

격 미사일(ABM)제한협정 탈퇴를 규탄하는 1인시위를 강행하다.

- 128호 소식지 발송작업이 낙성대 만남의 집 회원 모임방에서 있었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은 김민정, 김숙희, 김호, 이창희, 고광희, 송창학, 이정태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8 사월혁명회 민족학교 제3기 개강식이 향린교회에서 신입수강생과 사회단체 대표들이 함께 한 가운데 열렸고 첫 강의는 통일뉴스 상임고문인 김남식선생의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강의가 있었음.

- '2002 한·일 월드컵' 한국과 이탈리아 16강전에서 한국팀이 2:1로 역전승하다. 6월항쟁이래 처음으로 시청앞, 광화문등 광장과 거리를 환호시민들로 메움. 한편 일본은 터키에게 1:0으로 패함

19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는 한겨레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대선전 진보정당통합에 노력하고 범진보진영과의 대선후보 국민경선할 것임을 밝힘

- 충청로 한국청년연합회(KYC) 강당에서 덕수궁터 미대사관 신축을 반대하는 시민모임 조직화대를 위한 연대모임을 갖고 조직체계등 논의

- 민가협 250회 목요일집회 - 여는 말 : 임기란 전 상임의장, 공권력에 의한 여성인권 유린사례 : 천정연사무국장 신미영, 경찰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 서경순어머니, 참정권 행사못하는 양심수 :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 기독교 2총장당에서 NCC인권위원회등 주최, 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KSCF)주관으로 '한총련의장 석방과 이적규정철폐를 위한 연합기도회' 열림. 정진우(목정평)목사 사회로 나해집목사(NCC 인권위원), 유지성(명지대 법대학생처장), 김장영금(KSCF부회장)등 기도와 말씀(문재필), 한총련 상황보고(홍익대 부총학생회장), 격려사(권오현-한총련 범사회인대책위), 결의문(EYC부회장 백숙희), 축도(목정평 공동의장 박덕신목사)등 순서로 1부를 마치고 밖에 나와 촛불기도회 2부순서 진행함. 2부순서는 KSCF 대학부장 노경신사회로 임기란, 오종렬, 김재연(한국외국어대 총학생회장)등 발언이 있었음

-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자통협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미군전차 사망자 여중생 故 신희순, 심미선 공동대책위'는 의정부 미2사단 앞에서 '여중생 장갑차 살인만행 주한미군규탄대회'를 갖고 주한미군 사령관등 공식사과등 7개항 요구사항을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의 제지와 미군의 거부로 못함. 한편 의정부여고 학생 200여명도 함께 하며 '동생들의 죽음에 책임지라'며 규탄시위.

- 홈페이지팀모임이 신촌에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회의보다는 팀원간의 단결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 장재영, 오수강, 양계숙, 고광희 함께 했습니다.

-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범

- 청학련 대변인 황선씨를 이정태 운영위원이 면회함
- 중로 수훈회관에서 '미·일 패권전략과 아시아의 평화'라는 주제로 '6월항쟁계승 반전평화대회위원회'(한국)와 6·22반전평화세계 동시행동의 날 실행위원회(일본)등 한·일공동주최로 포럼열림. 김상곤(한신대)사회로 공동주최 대표인사말-이이시 히로시(일·한국 양심수를 후원하는회 사무국장), 홍근수 목사, 기조발제-김진균, 김승국(미·일 패권과 아시아의 평화), 요코하마 유키오(일 유사범은 위헌이다, 시로시마현 시민연락회 공동대표),토론에는 마야 모투무(기지 제3차 소소원고단 단장), 김귀옥(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정책기획위원), George katsiifacas(미국 평화운동가, 교수), Santiago y Dasmarias jr.(필리핀 공무원노조 수석부의장), 미드스나 준(핵과 미사일방위 Ni캠페인), 강정구(동국대 사회학과교수)등 대체로 미국의 패권주의, 군사주의, 제국주의규탄, 일본의 미국추종 군사대국화 경계-아시아의 반전평화를 위한 상설연대기구 필요성등 강조

- 지난 10일 명동성당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던 한국시그네틱스 여성노조원 64명은 12일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사무실로 옮겨 농성을 하다 12일만인 오늘 농성을 풀고 병원으로 옮겨갔다. 그동안 19명이 탈진해 실려나왔었고 45명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탈진해 병원에 가게 되었음 - 한편 보건의료노조 산하 8곳의 병원노조도 한 달 가까이 파업농성이 이어지고 있으나 월드컵에 문혀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음. 가톨릭의료원 소속노조원 850여명은 강남성모병원에서 농성중이고 성모병원 노조원 3명은 병원건물을 잇는 구름다리 위에서 천막을 치고 3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으며 노조원 6명에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30명에겐 소환장을, 151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있는 분통터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

-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와 우키시마호 폭침 피해자, 군인동원 피해자등 일제강점기동원 피해자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 외교문서 공개를 요구하며 굴욕외교를 규탄

22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6월항쟁계승반전평화위원회 주최로 '반전평화 세계동시행동의 날 서울대회' 집회를 열다. 한총목집행위원장 사회로 대회사-한상렬목사, 연대사-이이시 히로시(한국 양심수를 지원하는 모임 사무국장), George katsiifacas(평화운동가, 미교수), 백순환(민주노동당 비상대책위원장), 정현백(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의장) 두 사람이 반전평화 세계동시대회 결의문'을 낭독하였으며

- 동충련 나진숙(건대학생회장)의장의 결의문 낭독, '우리나라' 등의 문화공연도 있었음
- 23 ㉮ 국보법 폐지,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해제, 한총련이적 규정철폐 토요캠페인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음. 국보철국민연대, 양심수후원회, 범청학련대책위등 함께 하며 서명운동등을 진행
- ㉮ 음식물 감시물 6월모임을 동대문 이스턴호텔뒤 음식점에서 갖고 7월 환경기행등 논의하고 함께 월드컵 한국-스페인 경기 관람. 스페인팀 꺾고 4강진출
- ㉮ 서울대 근처 '녹두거리'에서 서울대동아리연합주최로 '민혁당사건관련 구속자후원을 위한 하루주점'이 민혁당가족들과 후원인들이 함께 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림. 주점기조는 민혁당 관련자들의 빠른 석방과 후원을 위한 내용이었고 양심수후원회에서는 이정태, 송창학, 이창희 회원이 함께 했고 송창학 시사모임대표가 격려말을 했음
- ㉮ 양심수후원회 6월 산행이 있었습니다. 당고개역에 21명이 모여 학림사-상계능선-수리봉-수락산정상(637m)-석림사장암역으로 내려오는 코스. 학림사에서 한상권교수의 우리나라 가람배치등 설명을 듣고 이슬아슬한 험로였지만 모두가 거뜬히 마침. 구름 많고 이슬비까지 가끔 내렸지만 최상의 산행날씨였음. 수락산 바위 봉우리를 정복할때마다 성취감 듬뿍. 장암역 근처에서 뒤풀이, 소개시간 가짐. 이정태 운영위원의 금강산 6.15민족통일대축전 참가보고등이 있었음. 다시 수유리역 근처로 옮겨 이정태, 박자윤, 이진희원 생일축하시간도 가짐. 신현익, 김창희, 김수룡, 송세영, 변숙현, 권주환, 이득형, 양계숙, 김재선, 유기진, 안학섭, 한수정, 이정태, 이혜경, 이창희, 김영식, 이승미, 강표정, 심민규, 한상권, 권오현. 뒤에 합류 박자윤, 이진, 김민정, 김숙희 등.
- 24
- 25 ㉮ 대경지역 양심수후원회 청탁원고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을 촉구한다' 송고
- ㉮ 명동 향린교회에서 4월혁명회 민족학교 제3기 제3강 강의가 있었음. '민족교육의 과제'란 주제로 이수호 전교조위원장의 강의가 있었음
- 26 ㉮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4년 6월형을 선고받고 안동교도소에 복역중인 김정환 前 '달' 지 기자를 면회함. 건강한 모습이었고 운동을 하고 독서를 하며 글도 쓰고 있는데 생활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원예반에 출역한다고 했음. 함께 안동교도소에 간혀있는 6기 한총련 손준혁 의장도 건강히 잘 있다는 소식을 들었음. 마침 오늘 어머님께서 면회오시기로 되어 있어 따로 면회신청을 하지 않았음. 이어 대구구치소로 가서 공개적으로 교생실습을 하다 부당하게 경찰에 강제연행,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기

- 다리고 있는 경북대 김정희 학생 면회. 김정희학생 면회에는 얼마전 출소한 최윤진씨와 함께 했음. 또한 이정태 운영위원은 대경지역 양심수후원회 일꾼과 함께 심재춘님 면회. 오늘 안동·대구에서의 면회는 이정태, 고광희, 권오현이 함께 함.
- ㉮ 대경지역 양심수후원회 사무실 방문하여 한기명의장 등 후원회 일꾼들과 양심수의 석방과 후원이란 공동과제에 대해 의견나눔 - 후원회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미리 약속했던 김태수, 이준원 두 장기구금 양심수선생님 뵈었음. 고광희 간사 이준원 선생님 취재했음.
- ㉮ 인사동 만복정에서 양심수후원회 편집위원 모임을 하여 128호 평가와 129호 준비에 대해 논의하고 김현희님이 새로운 편집위원으로 결합하여 인사함. 이승미, 오수강, 박정범, 이창희, 김호 등이 함께 하고 나중 권오현 회장님과 고광희간사가 뒤풀이에 함께 함.
- ㉮ 오후 의정부시 가릉동 미2사단 '가리슨캠프 레드 클라우즈' 정문 앞에서 민주노동당 등 4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책위원회 주최로 '미군장갑차 여중생 故 신효순, 삼미선양 살인사건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제1차 범국민대회' 열림. 화가 난 참석자들은 기지표식 캠프 하우스의 기지명등을 떼어내고 뚫린 철조망으로 10여명이 들어가려다 물대포등으로 막아선 미군의 공격으로 못 들어감. 이 과정에서 민중의 소리 이정미, 한윤진기자가 취재하던 중 미군에 강제연행. 카메라를 빼앗기고 없드려 팔을 비틀어 뒤로 플라스틱 특수수갑으로 채워져 폭행. 한윤진기자는 얼굴에 찰과상을 입고 목을 다쳐 복대를 하고 있을 정도 - 미군은 이어 의정부경찰에 넘겨 조사케하고 있으며 집회 참가자들이 석방을 촉구하며 경찰서 앞에서 농성을 계속했음. 이날 국민대회에서는 여중생 참사사건에 대한 미정부당국자의 공식사과와 철저한 진상규명, 한국당국에 대한 책임자처벌, 재판권행사, 소파협정 전면개정, 주한미군 철수등을 결의함.
-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983년 군복무시 녹화사업 대상으로 지목돼 12월 보안사에서 고문을 당한 뒤 자살한 한희철씨의 죽음을 민주화운동과 관련 있는 것으로 인정. '보안사 녹화사업에 대한 고발과 향거의 표현'이었다고 규정
- 27 ㉮ 민가협 251회 목요일집회 "구속노동자를 석방하라" - 여는 말: 조순덕 상임의장, 연대사: 노동인권현실과 탄압사례(민주노동당 김창희 노동위원장, 민주노총 비대위 황민호 위원장, 시그네틱스노조 남성숙 총무부장), 26일 범국민대회에서의 한윤진, 이정미 기자에 대한 폭행사태(민중의 소리 대표 윤원석), 규탄발언: 민가협 前 상임의장 서경순
-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회의실에서

진상규명위원장, 상임위원, 사무국장등과 계승연대 상임대표(오종렬, 남상현, 권오현등), 유가족대표(허영춘 외) 등 월례 간담회 열다. 간담회에서는 김준배씨등 조사종료된 사건의 결정지체문제, 관계기관의 자료미제출 및 중요 관련자 소환불응에 대한 대책문제, 유가족 및 단체의 사건확인-문서열람문제, 신중한 종결을 위한 상호협력 강화방안등 논의-그밖에 도국가보안법관련건의 처리문제 등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재판관)는 통신내용을 규제하고 사용자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9명의 재판관 가운데 6명이 위원 의견낸)

28 민혁당 사건으로 최진수(광주5056), 임태열(전주2086), 하영옥(대전4000)씨를 지난 26일 삼재춘씨 이어 이정태 운영위원이 면회를 하였습니다.

☛ 의정부 미2사단 정문앞에서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만행 대책위원회' 주최로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만행 규탄 및 민중의소리 기자 강제연행 폭행갑금 규탄 기자회견'을 열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민가협 임기란, 조순덕, 김정숙외 10여명 회원들과 진관스님, 이규재, 이관복, 권오현등 의정부경찰서로 한유진, 이정미기자를 면회하고 연행과정 폭행과 플라스틱 특수수갑등 미군만행의 증인들음 - 이어 수사계장 만나 즉각 석방할 것을 주장, 그러나 사건지휘를 맡고 있는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은 군사시설침범등 혐의로 영장신청을 하여 29일 10시 실질심사를 하게 되었음. 면회를 마치고 다시 미2사단 정문앞에 미군만행과 기자회견 규탄집회를 열고 미최고당국자의 사죄, 진상규명, 배상, 기자회견등 촉구하다.

29 ☛ 서해 연평도 서쪽 14마일 부근 이른바 NLL 남쪽 3마일 해상에 남북해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져 해군 4명이 죽고 1명 실종되었으며 19명이 중경상당했다고 국방부가 발표, 국방부발표로는 북측에서 선제공격을 하여 남측고속정(156톤)이 격침되었다고 했음. 그러나 북측에서는 '남측경비정이 북측 영해침범, 총포사격을 하여 쌍방간에 교전이 벌어져 손실이 있었다'고 발표. 문제는 분단지속에 있고 이른바 NLL설정 등 부적절한 미국의 일방적 조치에서 우리 민족끼리 싸우게 되고 있음

☛ 의정부 미2사단 앞에서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범국민 대책위원회' 주최로 '미군장갑차 여중생故 신효순, 심미선양 살인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2차 범국민대회'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림. 한충목 집행위원장 사회로 문대골 목사의 대회사, 우리나라 추모공연, 한상렬, 김준기대표등 규탄발언. 불법연행 구속되었다가 영장실질심사에서 풀려

난 민중의소리 한유진, 이정미기자의 보고발언등으로 대회 1부순서를 마친 다음 김종일 공동집행위원장의 이제까지 경과보고 - 미2사단장 면담과 항의서한 전달(노수희, 김준기, 권오현, 김종일)시도가 있었으나 2사단장은 나오지 않고 참모장 '불제'대령이 나와 접수서명없이 서류만 받아감 - 이어 대회장에서 서류전당 과정보고(권오현)뒤 대회결의문(전상봉) 채택하고 미군정문을 향해 돌진했으나 경찰체지로 의정부역까지 살인만행규탄 거리행진을 하고 정리집회로 모든 행사 마침

☛ 17차 월드컵 3,4위전 한국터키전에서 한국 3:2로 지다.

☛ 양심수후원회 활동회원들은 회원사이의 믿음과 단합을 높이고 회원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29,30일 사이 회원수련모임이 있었음. 기획모임 모꼬지도 함께 겸함. 신현익회원이 살고 있는 경기도 화성군 마도면 사강리로 토요일 오후 떠나 서신면 해안가에서 서해 해지기(낙조)를 보면서 마지막 칼국수로 저녁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신현익 회원집에서 뒷풀이를 하며 회원활동 이야기도 있었음. 의정부 미군규탄집회에 함께하고 늦게 도착한 조상희, 권오현도 합류. 조상희(우리나라 단원)회원의 금강산 민족통일대축전 참가보고를 들었음 - 30일엔 육지에서 2-3km 떨어진 제부도에 가서 300여미터 물나간 갯벌에 나가 진흙갯벌의 생태관찰도 했음 - 오후엔 서신면 군평리 술밭사구에서 준비해온 주먹밥으로 점심을 먹고 시원한 바닷바람 쏘이며 술밭그늘에서 오수를 즐기고 서울로 돌아왔음. - 신현익, 이승미, 변의숙, 양계숙, 이득형, 이일규, 김호, 고평희, 이창희, 조상희, 송창학, 주경임, 송인석, 송인영, 유선화, 이상엽, 이지수, 권오현 함께 함.

☛ 연평도부근 서해교전과 관련 남측(유엔군사령부)의 장성급 회담제외에 북측해군사령부 대변인은 4개항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회담을 원한다면 북방한계선(NLL)을 없애야 한다'고 밝힘.

30 ☛ 인천 나사렛 한방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이신 정순덕 선생님을 뵈오로시 회원들이 문병다녀왔는데 선생님께서 많이 외로워하신다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선생님 힘내세요.

☛ 일본 요코하마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진 제17차 월드컵 결승전에서 브라질이 독일을 2:0으로 이기고 월드컵 차지함

☛ 양심수 80명에게 영치금을 보냄.

☛ 출소장기수선생님들과 양심수가족들에게 지원금을 보냄.

☛ '민족 21' 10권과 '말' 4권을 양심수들에게 발송함.